

조선대학교 소식

Vol. 253 2020. 1월호

〈커버스토리〉
제17대 민영돈 총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생성공을 여는 대학 지역혁신을 이끄는 대학



건학이념

조선대학교는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 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개성교육 :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
- 생산교육 :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영재교육 : 폭넓은 장학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를 육성한다.

교육목적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연구와 교수 및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
-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

조선대학교 소식

No.253 | 2020. 01.

CONTENTS

04 | 커버스토리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 총장 취임식·인터뷰

10 | 특집

2020학년도 총학생회 김준연 회장·박한영 부회장

12 | 캠퍼스 갤러리

조선대학교 홍보대사 '푸른 나래'

14 | 조선대 핫뉴스

34 | 총동창회 소식

36 | 화제의 조선대인

지역사회 건강천사_간호학과 봉사동아리 '윙스'
석박사 제자들과 연구실 장학기금 마련_강혁신 교수
국내 최초 에너지거래 플랫폼 개발_성백섭 교수
모교 발전, 병원 부흥 위해 22억 발전기금_하충식 동문
명사초대석_우즈베키스탄서 건설한 기업 일군 정기호 동문
수상소식

52 | 글로벌 캠퍼스

〈유학생을 만나다〉
나이지리아 '모하마드 함자 하루나'

54 | 연구·특성화 사업

LINC+사업단
HK+사업단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지원단
SW융합교육원

62 | 중앙도서관 소식

64 | 학생 기고

국가가 '묻은' 민주주의, 시민들이 다시 '묻다'
_ 송혜림(법학과)

66 | 병원 소식

74 | 의료 칼럼

허리 통증, 디스크 협착증 치료는 척추신경블록 시술이 효과적!
_ 조선대병원 임경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76 | 치과병원 소식

78 | 치과병원 칼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강관리 습관
_ 조선대치과병원 김병욱 치주과 교수

80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chosun_univ



chosununi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 총장 취임

“미래형 인재 양성 위한 학생중심 교육으로 혁신”



조선대학교 제17대 민영돈 총장이 취임했다.

민영돈 총장은 지난 2019년 11월 29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4년간 조선대학교를 이끈다.

조선대학교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1일 제17대 총장 선거를 진행, 민영돈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진행한 선거에서 민영돈 교수는 58.7%를 득표, 18%를 얻은 윤창록 치의학과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민영돈 총장의 취임식은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취임식에는 박관석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들을 비롯해 전호종 전 총장 등 전임총장, 명예교수, 박주선·김경진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지자체장, 김혁중 광주·전남총장협의회장 등 지역 대학 총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공연이 펼쳐졌고, 이후 민영돈 총장의 약력 소개, 교기 전달, 취임사, 공로패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기간에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홍성금 교수(수학과)에게 수여했다.

박관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대학교는 물론 의료계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명성을 쌓아온 민영돈 총장께서 앞으로 우리 대학을 이끄니 든든하다”면서 “학교법인 이사회 또한 임박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차분히 준비하며 대학의 혁신을 위해 민 총장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도 축사를 통해 “민영돈 총장님의 리더십과 대학구성원들의 단합으로 모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30만 동문과 함께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의원도 “조선대가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뛰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도지사 등 기관장, 외국대학 총장, 지역민, 유학생, 연예인 등 각계각층에서 민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도 상영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영돈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이 그간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털어내고 ‘조선대학교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영돈 총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신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항해에 나선다”면서 취임사를 시작했다.

민 총장은 취임사에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 △자율에 기반한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학생 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약속했다.

민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이 세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 100년 대학의 인재양성 요람을 실현하겠다”면서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며, 지역민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민영돈 총장 취임사

사랑하는 조선대학교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

저는 오늘 조선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지역민과 구성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감사와 각오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해와 올해 학내 사정으로 인해 지역민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선대학교를 믿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민과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선대학교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1946년 7만 2천여 호남 시도민의 대학 건립 열망을 모아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민족국가를 이끌어갈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장학 교육을 3대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 대학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73년 역사의 조선대학교가 최근 대학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진학 고교생의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고갈, 11년째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문제, 각종 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감축과 대학 지배구조의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학내 갈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와 지역사회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셋째, 학생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입니다.

저는 재임 기간 동안 조선대학교 3대 건학이념을 토대로 이 세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 건학 100년으로 비상하는 인재양성 요람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개성교육'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수업, 사회공헌 학점제, 취업과 창업 프로젝트 교육 등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건학이념인 ‘생산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에 기반한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산업현장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복합적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특성화 분야 융합연구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으로 ‘영재장학교육’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학의 행정을 자율에 기반한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단과대학의 자율 책임 운영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행정 전문화를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한 조선대학교의 교육, 연구, 지역사회 협력 등 모든 활동의 결과물은 모두 우리 지역사회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대학이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털어내고 미래를 개척하는 ‘100년 대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년 대학으로 가려면 대학다운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는 교수답게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고, 직원은 직원답게 행정을 잘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학업에 열중하고, 동창은 동창답게 모교에 후원하는, 그런 대학다운 대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100년 대학’의 틀을 구축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소통과 신뢰에 기초한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모든 풍파를 헤쳐 나가면서 조선대학교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될 때 우리 대학은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가치를 가진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선대학교의 제17대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의 73년 역사를 계승하고 다가오는 개교 100주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제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제17대 총장 민 영 돈

지금은 조선대학교 학생 성공 위해 전력 질주

청년시절 민주화운동·교육·의학발전에 헌신

민영돈 총장-조선대학교 학생 대담 인터뷰

민 총장은 고교 재학시절과 대학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면서 퇴학과 유급을 당하는 등 고비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외과의사, 교육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민영돈 총장은 앞으로 학교 운영의 중심 가치를 ‘학생’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민 총장은 총장으로 임명받은 후 첫 행보로 기말고사 준비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직접 전달하는 ‘학생들과 간식데이’를 가졌다. 취임식 이전에는 김준연 총학생회장과 박한영 부회장, 취임식 이후에는 조대신문 및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 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신임 총장에 바라는 점을 청취했으며, 학생들은 민영돈 총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터뷰했다.

총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해 소회가 깊은 것 같은데 최근 취임식을 마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다소 긴 터널을 통과한 것 같지만, 무사히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봉합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의 제17대 총장으로서 우리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건학 100년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유신철폐 운동과 전두환 신군부 타도 및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고 들었는데, 살아오면서 고비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는 2학년 초에 박정희 정권 ‘유신철폐 학생시위 모의사건’으로 퇴학처분을 받아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좌절할 뻔 했으나 부모님의 믿음과 격려 그리고 친구와 선배 등 주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다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전두환 신군부 타도와 학원 자율화 시위 등 민주화 열풍이 거셌던 1980년 본과 3학년 때 5·18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학교당국은 학원소요 사태의 주동자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정학처분이 내려져 한 해 유급하고 졸업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당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시위 전력자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제 인턴 지원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기독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외과전문의 자격을 취득, 외과 과장으로 남아 진료와 후진 교육을 했습니다.

그 즈음 조선대학교에서는 1·8항쟁이 일어나고, 이돈명 총장이 취임하셨습니다. 저는 1989년 7월 조선대학교 의대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아 모교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선대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선대학교는 지난해(2019년) 초 선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II유형 역량강화형)을 추진하면서, 오는 2021년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비를 위해서는 이미 자체 진단위원회 실무진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평가 지표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평가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총학생회 면담

앞으로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먼저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기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입학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또 기업과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이들 일자리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장기 인턴십 과정 등을 설계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창업 경험 학습 및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젝트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단과대학별로 '창업스테이션'을 설립·운영해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학생들의 중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율에 기반한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 기준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융합연구 지원 및 연구성과 평가 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혁신 파크사업을 유치하고 산업체 R&BD화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학 거버넌스를 선진화시키고 단과대학 자율·책임운영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경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학생들과 '간식데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총장님께 바라는 점도 들으셨는데, 요청 사항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요?

간식데이는 임명 후 첫 행보로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싶어 고민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살려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총장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 보았습니다. 해외연수나 장학금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해외연수에 관한 것은 외국 대학 중에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선별해 최대한 많은 교류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대신문, 교육방송국 국장 면담

해외 대학에서 부실한 교육과정을 밟으면 학교와 해당 학생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장학금 혜택에 대한 문의는 교육계에 공헌하는 사회사업을 고려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장학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동원글로벌드리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우리 대학에서 사회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대학의 인재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학생들에게는 전공공부도 중요하지만 교수님 또는 학우들과 교류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술(경진)대회 등 대외활동에 도전하여 한마디로 '각각적인 역량'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졸업 후 사회생활과 직무능력에 있어서 남들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 교가에 "막는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스스로 '워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총장님과 함께 하는 간식데이'

2020학년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김준연 회장·박한영 부회장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으로 김준연(26·정치외교학과·사진 왼쪽)학생이 선출됐다. 부회장은 박한영(26·체육학과)학생이다.

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선 이들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7,845명의 유권자 중 10,543명(59.081%)이 참여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찬성 8,367표(79.361%)를 얻어 당선됐다.

김준연 당선자는 학생들의 취업, 창업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준연 당선자 등 2020학년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일자리 페스티벌 △우리 대학의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에 제16기 국토대장정단의 대장으로 인터뷰 했었는데, 총학생회장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부회장님과 함께 당선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조선대학교만큼은 많은 학우가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에서 투표해 주셔서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기간 전부터 개표하기까지 당선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준비했는

데, 그 부분을 학우들이 알아주신 것 같아 기쁘면서도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당선이 되고 학교에서 뵙는 교수님들이나 주변 친구,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축하인사를 받고 제 직책을 붙여서 불러주시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아 쑥스럽습니다.

앞으로 조선대학교 학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어떤 분들인지 학생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3학번 김준연입니다. 26세이며 현재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영화 관람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대외활동을 좋아합니다.

박한영 부회장은 현재 체육대학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고, 나이는 26세입니다. 박한영 부회장은 체대생답게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며 활발한 성격입니다. 박한영 부회장 역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편입니다. 이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장·부회장이 최대한 조선대학교 학우들과 친해질 계획이니 적극 호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지원하신 이유와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총학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일하셨는데 그 영향이 크가요?

군대 전역 후 복학해서 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생회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청년들의 고민과 학우들의 요구에 맞추어 학생회를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우리모두(we’re together)’가 슬로건인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모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두의 조선대학교’라는 의미입니다. ‘조선대학교 2만 학우 모두가 총학생회이며, 앞으로 모든 것을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2020학년도 총학생회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취업·창업에 대한 공약입니다.

우선, 2020학년도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취업을 멀게만 느끼고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렵지 않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항상 있었던 형식적인 취업 박람회나 설명회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박람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강연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시설, 모양과 테마가 비슷한 부스보다는 각 주제를 나누어 특색있는 부스 공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박람회나 설명회라는 느낌보다는 축제와 같이 즐길 수 있고 접근하기 쉽도록 VR체험이나 푸드트럭 면접 사진관, 이미지메이킹 부스 등을 마련해, 즐겁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최근 총장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간식데이’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총장님께서 ‘학생중심 교육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총학생회장으로서 총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총장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간식데이’에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총장님과 대학에 대한 희망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17대 민영돈 총장님께서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 총장님은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총장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 총장님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학년도 총학생회도 총장님을 도와 조선대학교가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전 재직 조선대 동문, 모교 찾아 취업특강 ‘호응’

조선대-한전 광주전남본부 ‘지역인재 양성 MOU’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재직 중인 조선대학교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 후배들을 위한 취업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9년 10월 30일 조선대학교와 한전 광주전남 본부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조선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취업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취업특강은 조선대학교의 대표 문화 열린 강좌인 ‘문화초대석’과 연계되어 펼쳐졌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에너지혁명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후 이어진 특강에서는 한전에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동문들이 후배들에게 한전의 채용 프로세스, 직군 및 직무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조선대학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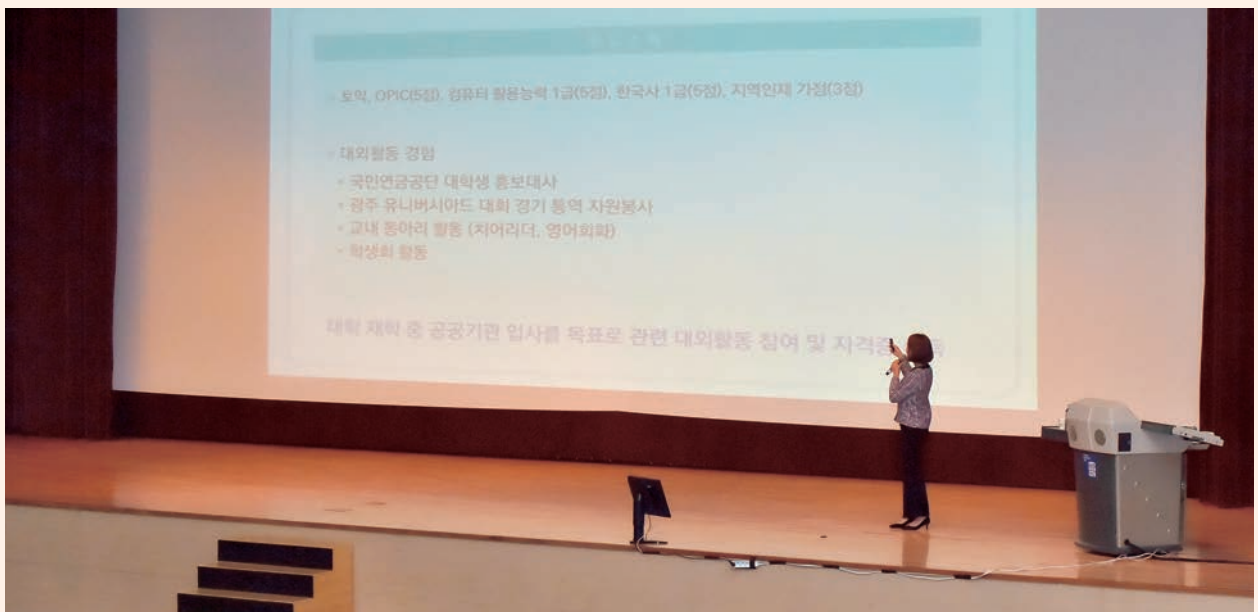
이번 특강에 참여한 정지희 학생(영어영문학과 4학년)은 “공기업 취업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갖고 공부를 시작하여 요즘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선배들이 직접 와서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고 친근하게 알려주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 앞서 오후 3시에는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와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전력산업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이대용 부총장과 황윤용 교무처장, 이민창 기획조정실장, 이종국 연구처장, 김봉철 대외협력처장, 김춘성 LINC+사업단장, 강희숙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장, 김남훈 전기공학과장, 최효상 전기공학과 교수, 황평익 전기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임철원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조선대학교 동문 한전 직원

본부장, 정춘택 기획관리실장, 류지상 에너지효율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우수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력설비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대용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임철원 본부장이 각각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주고받으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됐다.

이번 협약식에서 임철원 본부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빛가람 시대를 맞이해 지역 우수인재 채용에 힘쓰고 있다”면서 “오늘 맺은 조선대학교와의 협약이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대용 부총장은 “지역의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이 같은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조선대학교와 지역인재 육성에 협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선대 조태오 생명과학과 교수 국내 미기록 해조류 3종 발견



조태오 교수

조선대학교 조태오 생명과학과 교수가 한국 미기록 해조류 3종을 발견하고 환경생물학회지에 보고했다. 조태오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서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생물 미기록 3종을 유전자분석과 형태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조 교수는 이들 중을 각각 ‘전복숨털’, ‘실숨말’, ‘바늘점말’로 새롭게 지칭하고, 우리나라 생물 종목록에 추가했다.

전복숨털은 전복 패각이나 다른 해조류에 붙어 2cm까지 자라며 사상형의 엽체들이 가지를 내지 않고 뭉쳐서 자란다. 이 종은 미국과 칠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나라 부안군 변산반도와 포항에서도 생육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실숨말은 엽체가 10cm까지 자라며 실모양의 타래를 이루며 뭉쳐서 바위나 다른 해조류에 부착되어 자란다. 작은 가지가 직각을 이루며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그리스와 일본에서 보고됐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추자도, 동해시, 제주, 부안 등 전 해안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늘점말은 1cm까지 자라며 배양시 사상의 엽체들이 뭉쳐서 구형을 이룬다. 우리나라 울진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들 미기록 갈조류들은 해양에서 먹이생산과 순환, 그리고 해양생물군집을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복숨털은 전복의 먹이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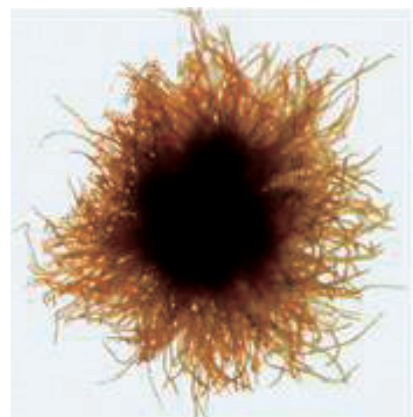
한편, 조태오 조선대학교 교수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을 운영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갈조식물자원의 확보와 소재개발과 활용에 힘을 쓰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7,000여 점의 해양갈조식물들을 확보해 식물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증명·분류그룹·채집정보·유전물질추출여부 등을 기록, 각 샘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생물정보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전복숨털



실숨말



바늘점말

조선대학교 '하나금융나눔재단 2019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조선대학교는 지난 2019년 11월 8일 오후 1시30분 본부 소회의실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2019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인재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매년 '하나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조선대학교 하나장학생은 △김희주(법과대학 프리로스쿨학과) △양효민(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이성희(체육대학 태권도학과) △나유승(보건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곽명진(인문과

학대학 역사문화학과) △진채린(사범대학 생물학과) 등 6명이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만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번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이대용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김봉철 대외협력처장, 진선익 학생지원부처장, 윤혜숙 장학팀장이 참석했으며, 하나은행에서는 문종원 KEB

하나은행 광주지점장, 이미숙 팀장, 전서영 계장과 하나장학생 6명이 참석했다.

이대용 부총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업에 정진하는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준 하나금융나눔재단에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장학생들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 지역과 대학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 신용진 물리학과 교수, 제7대 한국광기술원장 취임



신용진 교수

조선대학교 신용진 교수(64·후직)가 한국광기술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9년 11월 11일 한국광기술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신용진 신임 원장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석사, 미국 뉴욕 폴리테크닉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최근까지 조선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신 원장은 초기 레이저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로 의학(Medical Photonics)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정립했으

며, 광특화연구센터 소장,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및 '물리학과 첨단기술' 편집위원장, 한국광학회 부회장, 한국레이저가공학회 기술·대외협력 이사를 거쳤다.

또 한국광기술원 이사, 광산업육성위원회 운영위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위원,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IOCTC) 조직위원장, 국제광산업 대표자 협의회(IOA) 한국대표, ISO 전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위원, 광주전략산업기획단장,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광학전문가로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조정능력을 겸비한 광융합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책임자로 기대되고 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공동 치매 유전체 연구사업 착수

14일 미국 현지서 공식 협약 체결
5년간 총 140억여 원 규모 지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이례적인 연구비 지원으로 이슈가 된 한국인 치매유전체게놈해독사업에 대한 최종 협약이 2019년 11월 14일(한국 시각) 체결됐다. 이에 따라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지난 8년간 구축해 온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광주치매코호트) 시료를 활용한 동아시아인 치매유발 유전자 발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협약식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소재한 힐튼호텔에서 2019년 11월 12일부터 2일간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유전학컨소시엄(Alzheimer's Disease Genetic Consortium, ADGC)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렸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로부터 향후 5년간 총 140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 이번 한미공동연구 협약 체결은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뇌과학연구 총괄책임자인 엘리에자 매슬리아(Eliezer Masliah) 박사, 이진호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장, 보스턴대 린지 패럴 석좌교수(Lindsay Farrer, 보스턴의과대학) 등 3자 간에 이루어졌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유전체서열분석(NGS)기술을 이용해 치매환자 등 한국인 4천 명의 전장유전체 정보를 확보, 이를 활용하여 치매 발병 원인을 밝히고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 특이 치매 유발 유전인자를 발굴하여 보

다 정확도 높은 치매 조기예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지난 8년간 1만여 명이 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치매정밀검진 임상진단 결과를 포함해 초정밀 MRI 뇌사진, PET검사(양전자단층촬영검사), 뇌척수액검사 결과 등 다양한 생체의료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질병유전체 해독 사업은 대상자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분석 비용도 많이 드는 사업이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미연방정부는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생체의료 빅데이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한국에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미연방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직접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으로 생성되는 개인별 유전체 상세 정보는 기존에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확보한 생체의료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여 치매 진단과 조기예측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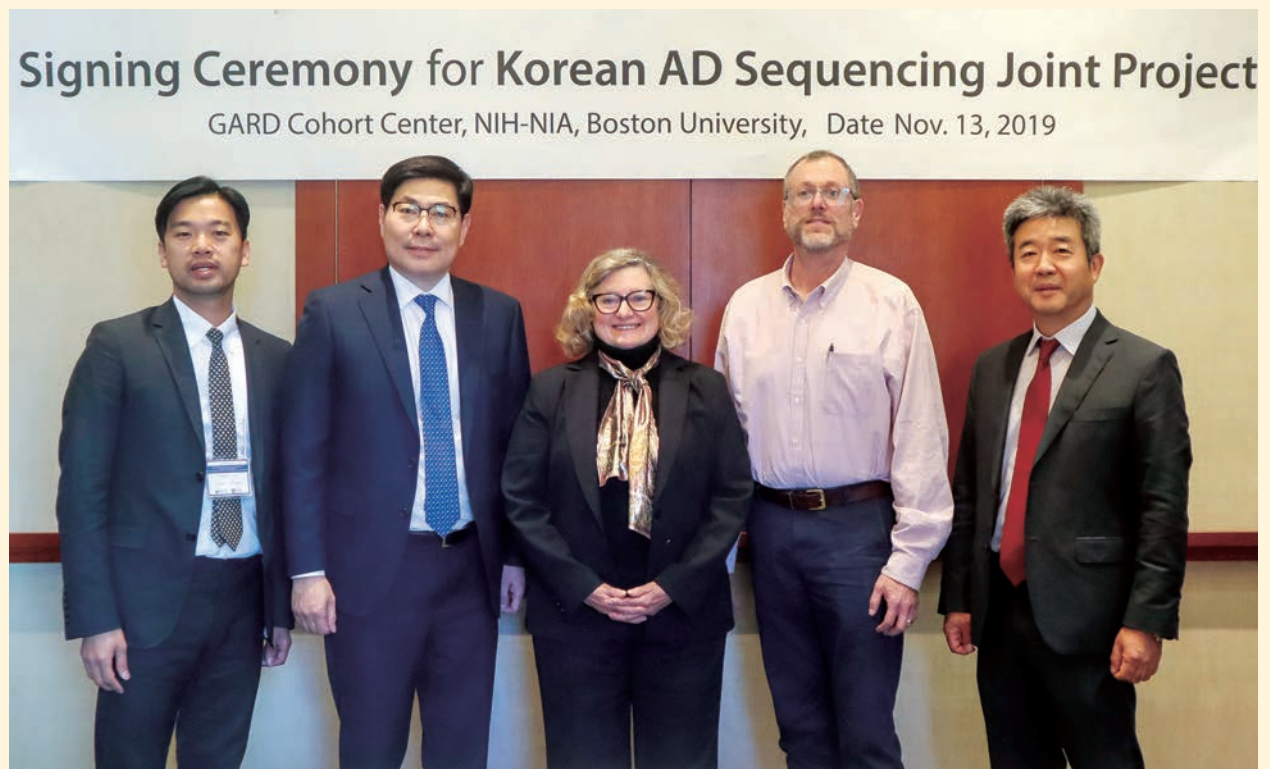
또한, 이번 한미국제협력연구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치매 관련 전장유전체 빅데이터가 생성될 예정이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광주치매코호트) 이진호 단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인 치매유전체게놈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연구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치매 조기예측 원천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체 진단기술은 면봉을 이용한 간단한 구강검사나 침 한 방울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여 보건소나 국가건강검진 등 대규모 집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정확도가 높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적 영향이 높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조기진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진호 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질병 관련 개인 유전체 빅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져 환자별로 치매 유발 유전적 요인을 세분화할 수 있고 치매 발병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인 맞춤형의료기술 개발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법과대학 동문·교수 “십시일반 기금 마련해 후배 사랑 실천”

법과대학 특별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동문과 교수, 명예교수들이 미래의 법조인 및 공공분야의 인재로 나아갈 법과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십시일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특별장학금을 수여했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특별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2019년 11월 27일 오후 12시 법과대학 6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여식에는 김종구 학장 등 12명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과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 정인성 변호사, 이재진 전남도립대학 교수, 김남정 (유)늘새롭 대표, 박용현 명예교수 등 장학금 조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과대학에서는 법대교수회 및 동창회 발전기금, 용곡 황금추 장학기금 등을 기반으로 학기별 특별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법학과와 프리로스쿨학과 재학생으로, 각 학과 교수가 성적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천된 학생 가운데 법대학장의 면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됐다.

특히, 이번 장학금에는 1억 7000만 원의 법조인재양성 장학금과 상록수 장학금(강혁신 교수 연구실 장학기금)이

추가되어 장학금 수혜자가 크게 늘었다. 법조인재양성 장학금은 법대 전·현직 교수들의 발전기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이며, 상록수 장학금은 강혁신 법학과 교수연구실의 연구원들과 동문들이 ‘후배 사랑’이라는 한마음으로 조성한 장학기금이다. <관련 내용 38p>

이번 특별장학생으로 용곡 황금추 장학금 9명, 법대동창회 장학금 1명, 법대교수회 장학금 6명, 법조인재양성 장학금 6명, 상록수 장학금 3명 등 총 25명이 선정됐다.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규정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김종구 학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황금추 회장님 등 우리 대학 동문들과 교수님, 또 명예교수님들이 후배들을 위해 한뜻으로 마련한 장학기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한 장학기금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여를 계기로 어떤 환경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중·일 국제적 식견 겸비한 예비 법률가 한자리에”

제10회 한·중·일 대학생 법률영어 발표대회



한·중·일 3국에서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예비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중·일 대학생 법률영어 발표대회’가 2019년 11월 8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펼쳐졌다.

앞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과 중국 절강공상대학 법학원, 일본 고베학원대학 법과대학은 교류협정을 맺고 교수·학생·학술 등 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왔다.

교류행사의 하나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한·중·일 영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3국 학생들의 돈독한 우애를 다져왔다. 2015년 중국 절강공업대학, 2017년 중국 영파대학이 합류하여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대회는 강혁신 조선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교수가 사회로 나선 개회식과 각 대학 대표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10회째 참가하고 있는 고베학원대학 田中裕明(TANAKA HIROAKI) 학장은 축사를 통해 “영어발표대회는 우리 세 나라 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키워가는 자리이며 이웃 나라의 문화와 법과 역사를 이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학생들이 이 영어발표대회를 통해 각 나라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의 리더, 세계의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하니안 조선대 법과대학 프리로스쿨학과 교수의 사회로 대학별로 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10분~15분 분량의 영어 발표가 진행됐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김희주 학생(프리로스쿨학과 1)이 ‘Reasonable Doubt(In dubio pro reo)·합리적 의심’, 김민선 학생(법학과 3)이 ‘Legalization of abortion·낙태 합법화’, 김동범 학생(법학과 4)이 ‘Day Fine System·일수벌금형제도’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대회는 보하니안 교수의 총평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장은 이번 대회에서 “한·중·일 영어발표대회는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 및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조선대학교 교육목표와 일맥상통한다. 한·중·일은 이제 아시아가 아닌 세계의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 업무협약’



조선대학교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학교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식은 2019년 11월 26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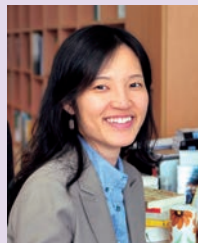
이번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이대용 부총장, 김춘성 LINC+사업단장, 이민창 기획조정실장, 손영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는 노경수 사장, 유광종 경영이사, 김훈 기획전략처장, 정찬홍 공공안전처장, 박광진 혁신인권실장, 김복철 안전시설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도시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과 취업정보 제공 △공공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 △조선대학교 특화분야 기반 LINC+사업단 등이 주관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 운영에 협조 및 지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대 기광서, 이희은 교수 저서 ‘우수 학술도서’ 2019 세종도서 선정



기광서 교수



이희은 교수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기광서 교수와 이희은 교수의 저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학술분야의 출판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식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기광서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저서 <북한국가의 형성과 소련>(도서출판 선인)은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역사/지리/관광 분야에 선정됐다. 이 책은 러시아 유학 1세대인 기광서 교수가 해방이후 북한 정권 수립의 과정과 구소련의 역할을 분석한 책이다.

이희은 신문방송학과 교수 외 학자들 10명의 저서 <디지털 미디어와 페미니즘>(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은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이 책은 미디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에서 오늘날 여성의 삶과 페미니즘의 전개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다.

2019년 조선대학교 IT박람회(제13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조선대학교 IT융합대학이 2019년 12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층 IT융합대학 IT홀에서 '2019 조선대학교 IT박람회(제13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IT융합대학은 매년 실시하는 종합학술대회를 지난해 'IT박람회'로 확대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IT융합대학 학생들에게 미래 비전 제시 및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 함께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IT융합대학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대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 제작한 디자인 결과를 전시하고, 학습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행사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된 첫 번째 초청 강연에서는 한전KDN 한상호차장이 '한전KDN 인재상 및 시스템개발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조인트리 박시남부사장이 두 번째 초청 강연자로 나서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이범식 교수의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와 경품추첨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반성범 IT융합대학 학장은 "매년 개최되는 IT박람회가 참석자들에게 4차산업혁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2020년 실무실습 프리셉터 워크숍 성료



조선대 약학대학이 전남대 약학대학과 공동 주관으로 2019년 12월 1일 오후 2시 신양파크호텔에서 '2020년 약학대학 실무실습 프리셉터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

최했다.

‘프리셉터’(preceptor)란 현장실습에 파견되는 약대생들에게 5주(200시간)간 실무를 지도해 줄 약사들을 말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을 비롯, 기존에 프리셉터로 활동했던 약사들과 새롭게 교육에 참여하는 약사들 5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실무실습 교육 사례발표와 함께 학생의 교육이나 환자의 복약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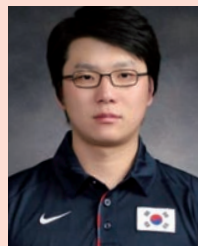
최홍석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장과 조원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도약사들의 헌신적인 교육에 감사를 표했다.

장항준 영화감독

“차기작 실제 주인공 농구부 강양현 감독과 인연… 발전기금 기탁”



장항준 감독



강양현 감독

장항준 영화감독이 차기작 ‘리바운드’의 실제 주인공인 조선대학교 농구부 강양현 감독과의 인연으로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10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장항준 영화감독은 지난 2019년 12월 4일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장항준 감독은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며 최근 ‘리바운드’라는 농구를 주제로 한 차기 영화를 준비 중이다.

이번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조선대학교 농구부 강양현(37) 감독이다. 조선대학교 출신인 강 감독은 지난 2012년 부산 중앙고 감독 시절 5명의 선수로 협회장기 준우승의 신화를 이끌었다. 당시 선수 중 1명이 서울 삼성의 가드 천기범이다. 강 감독은 대내외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아 농구부 감독으로 지난 5월 모교에 돌아왔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인 강양현 감독과의 인연으로 체육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감독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농구부를 지원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장항준 감독은 “부산 중앙고 감독 시절부터 강양현 감독을 응원했는데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활약하게 된 것이 무척 기뻐다”면서 “강양현 감독과 함께하는 조선대학교 농구부가 언제나 건승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상원 다스코(주) 회장, 조선대학교 산학협력 장학금 수여

아시아공동체론 강좌 우수 발표자 등 총 26명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동문 CEO인 한상원 다스코(주) 회장이 모교에서 주제발표와 칼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들과 창업사업계획서 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은 도로용 가드레일과 금속 구조물 제조 전국 1위 기업인 ‘다스코’(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한상원 회장으로 부터 지난 2017년 미래인재양성 대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 받아 시상됐다.

장학금 수여식은 2019년 12월 9일 오전 10시 경상대학 경영산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학생들은 조선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아시

아공동체론 강좌’(담당 교수 한상옥)에서 주제 발표 및 칼럼 공모를 통해 선발된 21명과, 글로벌청년창업 창업사업계획서 발표 시상자 학생 5명이다.

앞서 아시아공동체론 강좌에서는 ‘분절된 시대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의 주제로 논문 발표 및 칼럼 공모를 진행해 장학생들을 선발했다.

한상원 회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생인 한상원 회장은 다스코(주)를 매출 2,500억 원, 종업원 500여 명이 근무하는 건설한 상장기업으로 키워냈다. 한 회장은 학교법인 흥인학원 영산 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35년의 기업경영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나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선대 박선희 교수, 차기 언론정보학회장에 선출

내년 5월 공식 취임, 임기 1년



박선희 교수

조선대학교 박선희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한국언론정보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2019년 11월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9 한국언론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임시총회에서 박선희 조선대 교수를 22대 회장으로 선정했다.

박선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조선대에서 1999년부터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지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회 집행이사, 한국언론정보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 교수의 임기는 내년 5월 정기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새 언론정보학회장으로 취임한 후 1년이다.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재웅(의학과)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선정된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의 통합설명회가 지난 2019년 11월 2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됐다.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신성

장 정책의 일환으로 안과광학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2025년까지 180억 원(국비 80억, 광주시 80억, 민자 20억)이 투입하는데, 특히 조선대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시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광역시와 주관기관인 조선대학교 및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병원,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각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재웅 교수의 인사말과 광주·전남 안과 지회장 김선호 원장의 축사에 이어, 사업 개요 및 주요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지난 2019년 12월 6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201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공공 레거시(Legacy) 향상을 통한 스포츠도시의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과와 유산(Legacy)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을 비롯,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김수잔 회장, 광주광역시 체육회 오순근 사무처장,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 윤창모 과장과 전국 스포츠산업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2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림픽도시 레거시 사례 고찰(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 ▲서울올림픽과 평창동계 올림픽 레거시로 보는 2019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 유산 창출(박건만 한국체육언론학회 부회장) ▲스포츠도시 광주의 레거시 개발 성과(김민철 조선대학교 교수) 등을 세부 주제로 강연과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메가스포츠이벤트 이후의 공공 레거시 활용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진행

수시모집 완료 및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지난 2019년 12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3,680명 모집에 19,981명이 지원하여 5.43: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조선대학교는 수시 합격자로 3,569명을 발표하고, 8,583명을 예비순위자로 발표했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방법은 지난해(2019년)부터 등록확인 예치금을 받지 않고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변경됐다.

수시모집 합격자들은 조선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9년 12월 11일(수)~13일(금) 오후 4시까지 문서등록을 마쳤다. 미등록이나 등록포기로 발생한 결원은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9시까지 추가합격자로 충원됐다.

조선대학교는 또 2019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정시모집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38명 모집에 4,000명이 지원하여 2.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전형이 2.91대 1, 지역인재전형이 2.53대 1, 군사학과전형이 1.77대 1, 실기전형이 6.2대 1을 기록하였으며, 나군 일반전형이 2.76대 1, 나군 실기전형이 3.63대 1을 기록했다.

이후 정시모집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일정
가군 군사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 1. 2.(목)
가군 군사학과 2단계 평가	2020. 1. 6.(월) ~ 1. 8.(수)
가군 의치예과 면접고사	2020. 1. 4.(토)
가군 미술대학(만화·애니메이션) 실기고사	2020. 1. 9.(목)
나군 사범대학 면접고사	2020. 1. 15.(수)
나군 미술대학, 체육대학, 음악교육과 실기고사	2020. 1. 16.(목)
합격자 발표 및 예비순위자 발표	2020. 1. 23.(목)
군사학과 전형 합격자 발표	2020. 2. 4.(화)



“호남에서 가장 깊은 역사”...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50주년 기념행사

1969년 12월 전국 6번째로 개설
동문 재학생 한데 모여 화합 ‘축제’



호남지역 대학교 간호학과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가 2019년 개설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지난 1969년 12월 27일에 편제정원 30명으로 신설됐다. 이어 1973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 1999년 야간 편입학 특별과정(RN-BSN) 신설, 2004년 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하여 현재 정원 8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학과는 개설 이후 지금까지 3,117명의 학부졸업생과 250여 명의 대학원생을 배출했다.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과로 인정 받아왔으며, 국책사업을 수차례 수행하며 우리나라 간호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5년) 했으며, 2017년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해외 대학 및 의료기관과 간호학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개설 5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2019년 12월 6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개설 50주년을 맞아 간호학과 동문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간호학과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위해 준비됐다.

행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재학생, 동문 등이 참석하는 교정 투어를 시작으로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전제열 의과대학장, 서현주 간호학과장, 류화라 간호학과 동창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간호학과 동창회에서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에서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위상을 높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선배들의 특강도 준비됐다.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의 이해옥 교수, 황영자 주월 노인의 집 원장, 명지원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손정실 곡성군 홍보보건진료소장, 안지영 서울아산병원 차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후배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서현주 학과장은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는 4년제 정규 대학과정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개설된 간호학과이며, 호남에서는 가장 먼저 간호교육을 시작했다”면서 “50주년을 맞이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한데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핫뉴스

문영래 정형외과병원장,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기탁

“성장시켜 준 모교에 보답… 지속적 기부 약속”



조선대학교 출신 문영래 원장(문영래정형외과병원)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2019년 12월 12일 오후 5시 30분 문영래정형외과병

원에서 문영래 원장의 발전기금 기탁식이 개최됐다. 문 원장이 기탁한 발전기금은 1,000만 원이다.

문 원장은 이날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성장했다”면서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탁을 통해 모교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문영래 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퇴직하여 병원을 개원했다. 2005년과 2006년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수했으며, 대한 견주관절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기아타이거즈 재활센터장, 대한 스포츠 의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역기반 고령화산업 창조 전문인력양성팀, 종합평가 'A등급'



조선대학교 지역기반 고령화산업 창조 전문인력양성팀(이하 고령화산업팀)이 최근 진행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조선대학교 고령화사업팀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총 7년)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으로 지원받은 522개 사업단(팀)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종합분석평가를 시행했다.

조선대학교 고령화산업팀은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분야에서 '매우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고령화산업팀은 광주·전남 지역의 고령 친화적 사회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차세대 글로벌 연구자 및 실무전문가 양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황윤용 경영학부 교수를 팀장으로 윤영수, 박종철, 장용선, 오갑진, 이현철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고령화산업팀은 이번 평가에서 고령화 산업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심연구센터 구축 및 벤치마킹을 통한 교육과정 등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황윤용 팀장은 "지역기반 고령화산업 창조 전문인력양성팀은 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틀 확보하고, 새로운 학문 체계를 구축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집단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체육대학

여수 여남중·고교에 200만 원 상당 스포츠용품 지원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묘도초등학교에 이어 지난해(2019년) 12월에도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있는 여남중·고등학교를 방문해 2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지원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이 지역사회 상

생을 위한 스포츠용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은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스포츠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지역의 도서벽지 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스포츠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년째 추진해 왔다.

이날 체육용품 전달식에는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이계행 학장과 여남중·고등학교 정규문 교장을 비롯해 체육대학 김민철, 서효민 교수가 참석했으며, 여남중·고등학교 교사 및 전교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규문 여남중·고등학교 교장은 "섬 학교의 특성상 예산이 부족해 체육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으로부터 질 좋은 스포츠용품을 지원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선대 오현웅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미래도전기술사업 과제책임자(PM)로 발탁

초소형 SAR 위성군 개발 능력 확보로
미래 첨단정찰자산 다변화에 기여

지난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호남권 최초 1kg급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조선대학교 오현웅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미래도전기술사업'의 과제책임자(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로 발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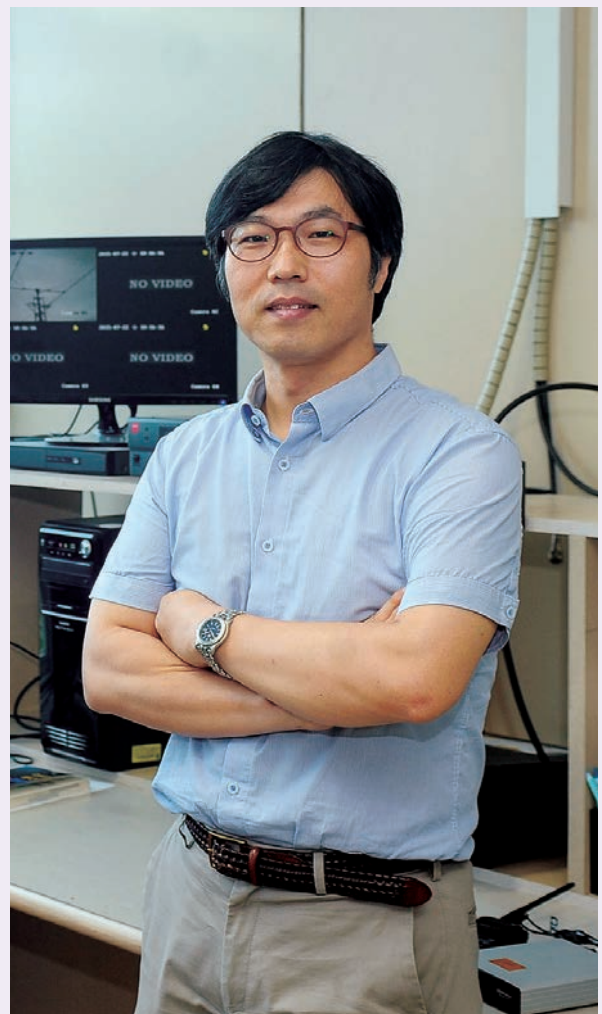
국방 미래도전기술사업은 스마트 국방혁신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민간 전문가를 연구 과제의 기획·관리 평가를 담당하는 과제책임자로 영입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PM(Program Manager) 기술기획' △국방 R&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술경진대회' △미래전을 대비한 신기술·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과제경연대회'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ADD '자체 기획'으로 구성돼 있다.

오현웅 교수는 공모를 통해 '초소형 SAR 위성군(群)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운용능력 확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과제 연구에 돌입했다.

오현웅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이 주관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2019년 국방 미래도전기술사업 성과발표회'에서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2020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오현웅 교수는 "제한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나가 미래 한국군의 국방기술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웅 교수

한편,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 연구팀은 호남권 최초로 인공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해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후1시 28분(한국시간) 인도에서 발사시켜, 분리 궤도 진입 및 지상국으로부터 위성 신호수신에 성공했다.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모하마드 예셀 탁월한 연구성과로 교육부장관상

2019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
성적우수상도 2명 수상… “타 대학 比 우수한 성과”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모하마드 예셀 아라파트(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모상만)학생이 지난 2019년 12월 20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된 ‘2019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수한 학업 성과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학업성적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매년 12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상호간 교류는 물론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학업과 연구업적이 탁월한 유학생들에게 교육부장관상 및 국립국제교육원상을 수여한다.

모하마드 예셀 아라파트 대학원생은 2016년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그해 9월부터 1년간의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2017년 9월부터 컴퓨터공학과 모상만 교수의 지도 아래 무인비행체 네트워크 기술

을 연구하고 있다.

모하마드 예셀 아라파트 대학원생은 우수한 학업성과로 조선대학교에서 최근까지 수행한 9편의 연구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게재 및 발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학문분야 상위 2% 국제학술지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사물인터넷 저널에 그의 연구결과가 게재되는 쾌거를 거두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선대학교 석사과정 사이드 자룰(우즈베키스탄) 학생과 학사과정 프랭크 로드리게즈(르완다) 학생도 학업성적우수상(국립국제교육원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상했다.

이밖에 조선대 하루나 함자(나이지리아·학부과정) 학생과 에르덴투야 발라드(몽골·한국어연수과정), 엘비스 무훈주(케냐·학부과정) 등이 각각 K-POP 군무와 단소 연주를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상금 20만 원을 받았다.

조선대 유영태 교수 문재인 정부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

광주·전남 1명...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유영태 교수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기 위촉위원(민간위원)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조선대학교 유영태 교수가 선임됐다.

2019년 12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민간위원) 16명 중 한명으로 유영태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를 지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심의·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처 장관으로 이뤄졌고,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이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기 위촉위원으로 송재호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을 선임했다.

조선대학교 글쓰기센터 ‘2019학년도 우수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NO JAPAN’, ‘리얼돌’, ‘인싸·아싸’ 주제



조선대학교 글쓰기센터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기초교육대학 글쓰기센터에서 개최한 ‘2019학년도 우수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성료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우수에세이 공모전은 조선대학교 재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청년세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 △NO JAPAN △리얼돌 △인싸·아싸로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총 344명이 응모한 가운데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의 학생이 상을 거머쥐었다.

이중 ‘리얼돌은 결코 리얼 ‘돌(doll)’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제출한 오슬향 학생(정치외교학과)이 대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오슬향 학생의 글을 “명쾌하다. 문제의 핵심을 에두르지 않고 돌파한다. 리얼돌이 리얼‘돌’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는 통찰력을 지녔다. 읽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청량감이 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최우수상은 조유정(문예창작과) 학생의 ‘아무튼, 리얼돌?’, 박소현(행정복지학부) 학생의 ‘외향과 내향이라는 동전의 양면’, 이광영(의예과) 학생의 ‘인생은 나에게 소주 한 잔 사주지 않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베트남 해외동문 만남 및 동문기업 탐방 행사

창립 70주년 기념



조선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2019년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3박5일 동안 총동창회 창립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베트남 해외동문 만남 및 동문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 동문들의 국위선양 및 유대·단합을 격려하고 동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내외의 조선대학교 30만 동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며, 총동창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드높이고 동문 상호 간 친목과 유대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민수 회장(동양건설 회장)을 비롯, 김용래 사무총장, 양효술 조선대학교 대외협력부처장 등 20여

명의 방문단과 임오택 베트남동문회장 및 이동철 전 베트남동문회장 등 10여 명의 베트남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날 사전 행사로 이동철 전 베트남동문회장이 경영하는 사이공 스타버스 회사를 방문했다.

이후 행사경과 설명, 이민수 회장 기념사, 임오택 베트남동문회장 인사말, 시상식, 기념촬영, 만찬 및 환담 등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임오택 베트남 동문회장과 이동철 전 베트남 동문회장이 공로패를, 양동식 동문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9년 조대인의 밤’ 송년행사 성황리 개최

조선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 오후 6시에 개최한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송년행사는 S타워웨딩컨벤션에서 원로 졸업생을 비롯한 임원 및 동문, 대학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자랑스러운 조대인 상’ 시상식, 2부 정기총회, 3부 축하행사 및 만찬 순으로 구성됐다.

2019년 올해의 ‘자랑스러운 조대인 상’ 수상자로는 정치·행정부문에 김철우 보성군수, 사회·봉사부문에 배종용 전 광주자연과학고 교장, 학술·문예부문에 조금배 전 조선대 공과대학장, 공로부문에 한남수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선정됐다.

이민수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이번 ‘조대인의 밤’은 조선대학교 동문들이 한해를 결산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축제장이 됐다”고 말했다.



“전공 지식으로 지역민과 세계인 건강증진에 날개(Wings) 달다”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윙스’

우수 봉사단체 표창장 수상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50주년을 맞은 경사에 이어 최근 학과 내 봉사동아리인 ‘윙스(Wings)’가 광주광역시립 광주공원노인복지관으로부터 우수 자원봉사단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전공 지식인 간호학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은 물론 세계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동아리 ‘윙스’.

윙스의 이향화 회장과 김채은 부회장, 이예지 총무를 만나 활약상을 들어봤다.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아리 소개를 간단히 해준다면?

동아리 윙스는 예비 의료인인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국제개발 및 국제보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 리더십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결성된 국제 봉사 동아리입니다. 현재 동아리원이 40명 정도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과 몽골 등 해외에서 보건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김진선 교수님과 김진희 교수님이세요.

광주광역시립 광주공원노인복지관으로부터 우수 자원봉사단체 표창을 어떤 계기로 받게 되었나요? 수상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광주시립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통해 인근 경로당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했어요.

주로 어르신들의 혈압·혈당을 재드리는 보건활동이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교육행사나 각종 세미나도 꾸준히 참석했어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면서 펼치는 보건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보람찼어요. 전공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됐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창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주신 것 같습니다.

윙스는 국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국가에서 진행되나요?

지난 2017년부터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희 교수님을 단장으로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력대학인 몽골민족대학교 간호학과와 조선대학교 간호학과와의 국제보건역량과 간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간호학과 학생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몽골을 방문해요.

몽골에서 윙스는 어떤 보건활동을 펼쳤나요?

지난 2019년 7월에 몽골 돈드고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현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구강보건교육, 암 예방 캠페인이 열렸어요. 교수님과 윙스 동아리원들은 콜레스테롤 분석기, 인바디 신체조성분석기 등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고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진료결과를 바로 알려줘서 주민들이 기뻐했어요. 일종의 무료진료이니깐요.



특히 '암 유병률은 높으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몽골의 의료현실을 반영해 암 예방을 위한 7대 원칙 캠페인'도 꽤 호응을 얻었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나 구강위생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윙스의 멤버들로서 현재 동아리원들이나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 간호학과 공부가 비교적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해서 동아리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동아리원들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봉사활동과 국제보건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에 끝냈던 광주지역 대학 간호학과 간 교류 세미나도 다시 활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먼 훗날 모교를 방문했을 때 후배들이 윙스의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동아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몽골 재가 암환자 가족돌봄 간호사 교육'

간호학과 성과중심 교육과정 운영 세미나도 개최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은 2019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몽골 현지에서 몽골 재가 암환자 가족돌봄 간호사 교육 및 간호학과 성과중심 교육과정 운영 세미나를 진행했다.

6일에 진행된 몽골 재가 암환자 가족돌봄 간호사 교육에는 몽골 5개(수흐바타르, 칭길테, 바가노르, 날라흐, 항울) 구청 소

속 방문 간호사 약 60명과 알당바간 몽골 보건부 간호과장, 조선대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김진희·김현례 교수, 전남대 채덕희 간호학과 교수, 경상대 서민정 간호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은 △몽골 암환자 관련 현황, 법과 정책 △방문 간호사의 역할 및 전담 △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암환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의사소통으로 구성됐다.

7일에 진행된 간호학과 성과중심 교육과정 운영 세미나는 교과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몽골민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및 몽골 현지 국립대, 사립대 교수들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전남대학교(채덕희) 간호대학 교수, 경상대학교(서민정) 간호대학 교수, 조선대학교(김현례) 간호학과 교수가 강의했다.

교육과정 운영 세미나 프로그램은 △각 교과목 개요 설명 △학기 구분 및 수업 준비 운영 △강의 계획서, 학생평가 방법 설명 △각 교과목 실습운영 방법 및 현장실습 지도 방법 △집담회 운영, 학생 과제 관리 등으로 진행됐다.

강혁신 교수

석·박사 제자들과 합심해 연구실 장학기금 마련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석·박사 졸업생과 재학생 등 제자들 9명과 뜻을 모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해 눈길을 끈다. 장학금의 명칭은 ‘강혁신 교수 연구실 장학기금’(상록수 장학금)이다. 강혁신 교수는 일본 유학생할 중 특별한 인연을 만나 교훈을 얻고 장학기금 조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혁신 교수

연구실 장학기금을 조성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20대 시절 일본에서 9년간 유학생생활을 했습니다. 현지 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봉사자 한 분이 선뜻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인 저를 마치 아들처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일본인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일본인 어머니의 살뜰한 보살핌이 긴 유학 생활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님께 하루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돌보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큰 울림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give and take가 아니다. give, give, give, give, and give이다. 네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지마라. 네가 받은 것 이상을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고 살면 된다.”

저는 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석·박사 제자 9명과 합심하여 총 10명이 연구실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장학금 수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036년까지 장학금 기부 약정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150만 원으로 3명의 학생에게,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더 큰 금액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1년에 2회 매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년이면 6명에서 8명, 10년이면 60명에서 8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학기금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우리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뜻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장학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사회에는 나눔과 감사의 마음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혁신 교수와 연구실 장학기금을 조성한 석박사 제자들

2019년 하반기 상록수 장학금 기부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강 혁 신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 수
강 기 원	법률사무소 기원	대표 변호사
김 남 정	(유)늘새롬	대 표
김 성 호	커리어멘토협동조합	이 사
김 유 진	광주지방법원	주 사
류 노 엘	법무법인 맥	변 호 사
박 철 완	NH농협은행	차 장
소 재 열	한국교회법연구소	소 장
연 규 황	한국석유관리원	과 장
정 인 덕	(주)성원산업S&D	대 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들, ‘후배사랑 장학기금’ 조성 움직임

첫 주자는 조형래 변호사… 1,500만 원 약정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들이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1구좌 월 1만 원을 후원하는 ‘후배사랑 장학기금’ 조성에 나섰다. 그 첫 번째 주자로 법학과 동문인 조형래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2월 20일 1,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조형래 변호사는 ‘후배사랑 장학기금’의 일환으로 월 25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선대학교에 납부하기로 했다. 조형래 변호사 발전기금 기탁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총장실에서 개최됐다.

조 변호사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종구 법과대학장은 “조형래 변호사가 ‘후배사랑 장학기금’의 첫 번째 주자가 되어 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며, 조 변호사의 기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형래 변호사는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조선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 변호사는 前 기아자동차 사내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 모교 조선대학교에 22억 기부

10억여 원 기탁에 이어 건축·장학기금 12억 원 추가 기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3회 졸업생으로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이 모교에 12억원 규모의 건축기금과 장학금을 추가로 기부했다.

2019년 12월 5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하 이사장은 민영돈 조선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축기금 10억 원과 장학기금 2억 원을 기탁했다.

하 이사장의 각별한 모교사랑 실천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하 이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에 10억여 원의 장학금과 건축·연구기금을 전달해 왔다. 앞선 기탁금에 이날 추가로 기부한 12억을 합하면 하 이사장은 총 22억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하게 된다.

이는 조선대 동문 개인이 낸 기부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하 이사장은 광주 동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단도 만나 내년부터 저소득층,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문화축제행사에 동구지역 아동 400여 명도 함께 초청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하충식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면서 “조선대학교와 조선대병원의 부흥을 위해 다른 동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하 이사장의 지원으로 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그 뜻을 깊이 새겨 동문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선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충식 이사장은 지난 1985년 조선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경남 창원에 산부인과 의원 개원을 시작으로 한마음창원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 이사장은 또 현재 단일면적으로는 영남권 최대 규모인 병원을 2021년 3월 중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하 이사장은 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의 생활비와 장학금도 지원해 왔고, 이들을 위해 계절별로 연간 4회에 걸쳐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 이사장은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제1회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 국민포장을 수훈 받았으며, 2019년 어린이날 기념 국민추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대용량 에너지거래 플랫폼 개발

조선대학교 성백섭 교수

2019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선정

총사업비 98억 원... 국비 70억·시비 10억 등 확보



성백섭 교수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대용량 에너지거래 플랫폼이 조선대학교에서 개발될 예정이다.

성백섭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 교수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에 실증형 R&D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98억 1,000만 원(국비 70억·시비 10억 등)이며 사업기간은 5년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DC(직류)배전시스템 적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용화 전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전기공급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개인 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를 언제 어디서든 확보할 수 있는 'DC(직류)에너지 거래 및 정산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념이 융합된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DC(직류) 에너지거래 플랫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에는 광주시와 세계 최초로 대용량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KT, 실시간 전력거래(RTP) 알고리즘 개발을 전담할 한국전기연구원과 대호전기(주), 스마트마인드(주), (주)시그넷이브이, 목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조선대 캠퍼스는 대용량 에너지거래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로, 해오름관과 IT융합대학 등에 태양광 설비(PV), 에너지저장장치(ESS), 500kW의 대용량 직류 배전, 400kW 고속충전기와 양방향(V2G)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하고, 대용량 직류전력거래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용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충전기와 달리 전기차의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 남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기술이 접목된 양방향 충전기다.

전력거래 시스템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과 무결성, 효율성 등 안전성을 강화해주고, 인공지능 기술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게 한다.

성백섭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미래 신성장 에너지 동력산업 확장 등에 기여하고, ICT산업과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신재생에너지, ESS, 배터리 분야에서의 상대적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파망으로 우즈베크서 첫 사업… 연매출 2천만불 기업 성장”

우즈베키스탄 법인 TOW 회장 정기호(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동문)

유라시아의 광활한 평원 중심부에 자리 잡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폐쇄적이었던 정치·경제적 상황, 낙후된 산업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사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알려졌다. 그 낮은 땅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건실한 기업을 일군 조선대학교 동문을 찾았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기호(64) 회장은 현지에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연매출 2천만불을 달성하는 기업 TOW와 ㈜해륙물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통상산업부 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그의 노력은 우리나라 안팎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정기호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27일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파란만장한 성공스토리를 경상대학 후배들에게 전했다. ‘매일이 개척과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정기호 회장의 삶을 자세히 물어봤다.



정기호 회장

모교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특강을 들은 경상대학 후배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선대학교 소식지 독자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1985년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금방 공부를 접고 어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안정적이었지만, 가족이 풍족하게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봉급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으로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를 받고 9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TOW(TOP OF THE WORLD) 법인과 JS GLOBAL 법인을 설립했으며, 수도인 타슈켄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슈켄트 근교에는 농산물 포장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법인 BOW)을 건설했고, 한국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에 ㈜해륙물산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첫 사업 아이템이 ‘양파망’이었다고 해서 눈길을 끄네요.

광주에서 생활필수품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사업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인의

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양파농사를 많이 짓는데 양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이 떠지더군요.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한국 물건을 팔아보자’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때 양파망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장조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천에 널린 공산품들이 그곳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상태였죠. 한국 제품이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좋은 시장이었어요. 저는 삼성과 두산 같은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의 물건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판매했습니다.

무역, 중개업을 기반으로 사업의 저변을 확대했는데, 한국 제품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한국제품은 우수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가졌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산업 선진국 같은 경우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에 경쟁력을 가진 중국제품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 영업을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입찰을 할 때 가격 면에서 중국제품에 먼저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만, 저는 담당자를 찾아가 “중국 제품을 사고 5년 쓰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을 사고 10년을 쓰시겠어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한류열풍 덕분에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했어요. 한국 제품 인기몰이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고비를 겪은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무역을 하다 보니, 관세나 통화에 따라 거래에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1997년 국가부도 상황에서 금융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고 환율이 며칠 사이에 등락을 거듭해 애를 꽤 먹었었죠.

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급속도로 진출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딜러를 하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거래 종단을 요구했어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니 어쩔 수 없었죠. 지금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변수가 많아서 세상을 많이 배웁니다. 환율이 넘은 지금도 변화하는 세상을 독서를 통해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세계를 누비는 기업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 아이디어는 먼 곳에 있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가까이에서부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근면·성실히 살아가면 막대한 상황에도 길이 보일 것입니다. 선배로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정기호 TOW 회장 조선대학교 특강



우즈베키스탄 현지 두산 인프라코어 직원들과 함께

● 조선대 윤창록 교수, 제71주년 과학수사의 날에 대통령상 수상



윤창록 교수

조선대학교 윤창록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가 지난 2019년 11월 4일 열린 '제71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학 분야 '과학수사 대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과학수사 발전에 힘쓴 교수나 경찰관에게 과학수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부검의사 등을 지냈으며, 1989년 리비아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법치의학으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현재 윤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운영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윤 교수는 "한국의 법치의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조선대 고재웅 교수, 2019 의료산업 육성 유공 광주시장상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고재웅 교수가 지난 2019년 12월 6일부터 이틀 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광주 의료산업 산학병연관 통합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육성 유공자로 선정되어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광주광역시시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 10명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

주지역 의료산업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이뤄졌으며, 강연과 토론의 장도 마련돼 광주 의료산업 성장방향을 공유했다.

고재웅 교수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해 광주시 의료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광주 의료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고재웅 교수는 안과광학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시

가 주관하는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총괄책임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6년간 180억 원(국비 80억, 광주시 80억, 민자 20억)이 투입되며, 특히 조선대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시험분석 및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 광재복 교수팀, KSME-SEMES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동상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광재복 교수와 재학생들이 대한기계학회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세메스(SEMES)가 주최한 '제4회 KSME-SEMES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KSME-SEMES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해 마련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기계학회와 세메스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지원부가 후원해 개최됐다.

2019년 공모전에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국내 3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총 78편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세메스와 대한기계학회는 이중 우수 제안서 25편(전문가그룹 13편, 젊은 공학자그룹 12편)을 1차로 선발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4팀, 동상 4팀을 선정하고 지난 2019년 11월 14일 시상식을 가졌다.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광재복 교수와 이효성·이정현 대학원생, 강유림 학부생으로 이뤄진 IDOL(Innovative Design Optimization Lab)팀은 '초소수성 유기 박막 코팅을 이용한 SMT 인쇄 및 도포 공정 개선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SMT(Surface Mount Technology)는 반도체 패키지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표면실장기술로서, 미세한 크기의 정밀한 전자부품을 회로기판의 Pad에 무연솔더로 연결하는 핵심 공정기술이다. IDOL팀은 SMT 공정 중 발생하는 불량률을 해결하기 위해 초소수성 유기 박막 코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대회에서 동상에 선정된 IDOL팀에게는 100만 원 상금이 지원됐다. 이에 더해 입상 팀 모두에게 주어지는 세메스 입사 특전도 얻게 됐다.

재료공학과

● 김민석 학부생, 국제학술대회 ICMR-2019 최우수포스터상



김민석 학생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김민석(지도교수 김정석) 학생이 지난 2019년 11월 29일 개최된 'ICMR-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and Reliability·재료 및 신뢰성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대한기계학회 및 한국신뢰성학회 주관)'에서 '차세대 임플란트 바이오 소재를 위한 저탄성률의 지르코늄 기반 합금 개발'(Development of zirconium-based alloys with low elastic modulus for next-generation implants

bio-materials)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김민석 학생은 이미 한국기계공학학회에서도 2019년 4월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국제저널(Applied Science, SCIE) 2019년 12월호에 제1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할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정석 교수는 "김민석 학생이 연구한 소재는 탄성계수를 인체골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저하게 감소시켜 응력 차폐를 효과적으로 제어, 골흡수현상을 방지할 차세대 치과용 바이오소재로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영학부

● 김현우 학부생 등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우수상

‘경증치매 노인 위한 스마트밴드’ 아이디어 제안 눈길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최근 열린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대학(원)생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김현우, 전홍광, 최정범 학생으로 이뤄진 은빛동반자팀(지도교수 민진영)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스마트밴드’로 우수상(3위)을 수상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에게 IT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IT 연구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개요서를 작성해 한국경영정보학회에 미리 제출하며, 학술대회 당일 제출한 아이디어를 발표(PPT)를 통해 공개하고 시상식을 갖는다.

조선대학교 은빛동반자팀은 이날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스마트밴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경증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주요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해 장애 상황을 완화시키는 스마트밴드 ‘시니어스(Senius)’를 제안해 평가 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정상근 학부생 등 ABC마케팅팀, 광산구 상상페스티벌 공모전 대상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대학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정상근(15학번), 이다혜(17학번), 고경두(14학번), 서원진(14학번)으로 구성된 ABC마케팅 동아리 팀이 지난 2019년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된 ‘광산구 상상페스티벌 축제기획/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광산구청장상)에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ABC마케팅 동아리 팀은 이번 공모전에서 ‘비아막걸리빛축제’(가칭)를 기획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비아막걸리빛축제’는 광주 광산구 비아막걸리에 최근 2030세대 SNS에서 인기 있는 LED 빛축제를 접목한 행사다.

● 산업공학과 잇따른 성과 눈길



신종호 교수



김성준 교수



김민재 학생



이채교 학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이 최근 열린 각종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상을 거머쥐는 등 남다른 성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공학과 신종호 교수팀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한국가스공사(KOGAS)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신종호 교수팀은 ‘심층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과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형 생산기지 운영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 발표해 대상에 선정됐으며 부상으로 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6일에는 산업공학과 김성준 교수와 신종호 교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채교, 김민재 학생이 팀을 이뤄 ‘2019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개발 컨퍼런스’에 참가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성준 교수팀은 ‘보일러 효율개선을 위한 급수/증기 계통 건전성 감시 방법론 개발’이라는 논문 발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부생들의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김효중, 김민찬, 김정욱, 임동혁 학생이 김성준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 ‘2019년 추계 학술대회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김효중 학생 등 4명은 이 대회에서 ‘작물재배기(CU_FARM) 및 생육조건 최적화 기술 개발’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에는 산업공학과 김

형태, 이운재, 최운창 학생이 산업공학과 백정우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신뢰성학회가 주최한 ‘2019 추계 학술대회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형태 학생 등 3명은 이날 우유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계량 예측모형을 이용한 시스템 균형 달성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선박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손보훈 학생, 동아시아 해양환경에너지 워크숍 우수상 수상 등



정세민 교수



손보훈 학생



김이슬 학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선박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열린 각종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손보훈 학생이 EAMEN2(East Asian Network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의 주관으로 일본 오사카부립대학교에서 지난 2019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9회 동아시아 해양환경에너지 워크숍(The 9th East Asian Workshop for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EAWOMEN2)'에서 'Nume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otion Performance of a Light-buoy in Waves'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파랑 중 등부표(Light-Buoy)의 운동을 정확도를 높인 전산해석을 통해 검토한 연구로, 해양의 다양한 부유식 구조물의 파랑 중 운동성능 추정과 운동안정성 확보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정세민 교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같은 학과 학부 2학년 김이슬 학생은 지난 2019년 11월 7~8일에 개최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Young

Scientist 발표대회'에서 'CFD를 이용한 해면 효과의 주위의 유동특성에 관한 파라미터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상(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 학·석사 통합 부문)을 수상했다.

이어 동학과 학부생 강호정·김이슬·김주삼·심국현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대한기계학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전국 대학생 유체공학경진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팀은 수면 위를 항주하는 날개 주위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를 주제로 상을 거머쥐었다.

또 동과 김명호·김정민·허준영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같은 대회에서 '탐승자세와 헬멧형상 변화를 고려한 탑승자 및 스켈레톤 주위 유동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도를 맡았던 정세민 교수는 "수상한 학생들이 소속된 다중물리통합모델링 연구실에서는 선박·해양·자동차·항공 분야의 공학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하여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연구 성과가 수상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 정효빈 학부생, 국제학술대회 ASPEN2019 최우수논문상



정효빈 학생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광기술공학과 정효빈 학생(4학년·지도교수 주기남)이 지난 2019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마쓰에에서 개최된 ASPEN2019(Asi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and Nanotechnology)에서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했다.

ASPEN은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정밀기계 관련 학회들이 인적교류와 공동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공동 조직한 국제학술대회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정효빈 학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3D 자유 곡면 측정을 위한 공간 위상 천이 기반 단일 샷 편광 층 밀리기 간섭계'(3D Freeform Surface Measurement by a Single Shot Polarized Lateral Shearing Interferometry based on Spatial Phase Shifting Technique)라는 주제의 논문의 공동저자로 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산업계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자유곡면(Freeform surface)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이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단 한 번의 측정을 통해 대상체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 석사과정 김승표 학생, 2019 국제박막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김승표 학생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승표(지도교수 최한철·치과재료학교실)학생이 최근 열린 'TACT 2019 국제박막학술대회(International Thin Film Conference)'에서 포스터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승표 학생은 학생우수논문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17일부터 20일 대만 GIS TAIPEI TECH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TACT 2019 국제박막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김승표 학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RF-sputtered HA Coatings on Porous Ti-25Nb-xTa Alloys'에 관한 연구발표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연구재단 및 조선대학교 에너지인력양성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기공이 형성된 Ti-25Nb(나이오븀)-xTa(탄탈) 합금에 RF스퍼터링(sputtering)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HA)를 코팅시킴으로써 표면 특성을 크게 개선시킨 연구다.

한편, TACT학회는 대만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학회로 표면 관련 분야에서 저명한 학회로 알려져 있다.

생명과학과

● 최광철 학부생, 환경부 주최 대학생 생물분류 분야 연구 공모전 특별상



조선대학교 생명과학과 4학년 최광철 학생(지도교수 조태오)이 환경부 주최 '2019년 대학생 생물분류 분야 연구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최광철 학생은 이번 공모전에서 '한국산 홍조류 산호(Corallina) 속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

특별상을 받았다.

이 공모전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생 생물 분류연구'라는 공모 주제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접수 받았다. 전국에서 40여 개 팀이 공모전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9년 11월 22일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광철 학생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알려진 7종의 유절 산호조 이외에 3개 종이 더 생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전자분석과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제시했다. 최광철 학생의 연구발표는 전자현미경 촬영을 통한 각 종들의 내부 구조를 밝혔다는 점과 새롭게 추가된 3개의 종이 한국에서 보고된 신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성과로 인정받아 상을 거머쥐었다.

생명화학과분자공학과

● 김재훈·정진주 학부생,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과분자공학과 학부생 김재훈·정진주팀(지도교수 이정수)이 지난 2019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남 여수시 디오션 리조트에서 개최된 '2019년도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포스터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2019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으로 진행한 'Fabrication of Nanocellulose derived from non-edible and harmful seaweeds via radiation processing'로, 먹지 못하는 해로운 해조류에서 전자빔 공정을 통해 나노셀룰로오스를 추출을 연구한 결과의 논문이다.

김재훈 팀의 논문은 최근 전남지역에 해로운 해조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로 이날 학술대회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정수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평가되어온 광주, 전남 지역의 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연구여서 더 의미가 있었다"면서 "상을 받은 학부생들은 대학원생 못지않은 연구역량을 가졌으며, 미래가 밝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기계공학과

● 석사과정 김성근·박사과정 척트빌렉트 벌더

국제 에너지과학기술분야 학회서 잇따라 수상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성근 학생(지도교수 정성용)과 박사과정 척트빌렉트 벌더(Tsogtbilegt Boldoo·몽골·지도교수 조흥현)학생이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국제적 에너지과학기술분야 학회인 ICES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

했다.

김성근 학생은 ‘스위핑 제트를 적용한 농업용 드론 분사 노즐(Spraying nozzle adopting a sweeping jet for an agricultural drone)’이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농업용 드론에서 사용 중인 노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위핑 제트를 사용한 새로운 노즐을 개발한 것이다. 또 척트빌렉트 벌더 학생은 ‘자기장에 따른 MWCNT와 Fe₃O₄ 하이브리드 나노유체의 열전도도 효과(Effect of magnetic field on thermal conductivity of MWCNT/Fe₃O₄ hybrid nanofluid)’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척트빌렉트 벌더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열 집열기의 발전과 새로운 열물성이 우수한 나노유체의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의생명공학과

● 석사과정 김현준 학생,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김현준 학생

조선대학교 치의생명공학과 석사과정 김현준(지도교수 최한철)이 ‘2019년도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현준 학생은 지난 2019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주교원드림센터 경주에서 개최된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표면처리에 따른 전동식 치과용 Ni-Ti파일의 내식성(Corrosion Resistance of Dental Rotary Ni-Ti Files with Surface Treatment)’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김현준 학생의 논문은 치과신경치료에 사용되는 전동식 치과용 Ni-Ti파일 피로파절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면처리를 행하고 임상환경에서 전기화학적 평가를 통해 피로파절 개선을 예측하는 내용이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부의 산학연 컨소시엄사업(2019 collabo)에서 지원된 연구로 BPC(주)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Ni-Ti 파일의 소재개발과 제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한철 지도교수는 “학생이 속해 있는 치과재료학연구실에서는 우수한 연구결과로 학생들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이후 연구소나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을 만나다 _ 모하마드 하루나 함자(항공우주공학과·나이지리아)

조선대학교 소식지는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생활기를 쓰고 있다. 이번에 만난 유학생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항공우주공학과 모하마드 하루나 함자다. 항공과 우주에 관심이 많은 하루나는 유학 전 조사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룬 조선대학교를 스스로 찾았다고 한다. 하루나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고, 2018년에는 조선대학교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등 한국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기소개를 해준다면?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스물 세 살 하루나라고 합니다. 현재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받는 만큼 사회에서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대한민국에서 지리상으로 꽤 먼 나라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유학을 오게 되었는지요? 한국어도 수준급인데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이고,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지리

아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니 한국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국 음악, 음식, 드라마 등에 대한 관심을 생겨서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워낙 관심이 많고 전공공부도 하다 보니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됐어요. 하지만 한국어 실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018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21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특히 광주까지 와서 조선대학교에 유학을 온 특별한 계기나 인연이 있는지요?

한국에서 유학할 도시를 고를 때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봤어요. 광주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또 저는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찾아보던 중에, 조선대학교가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정보를 찾아서 조선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항공우주공학이라 눈길을 끄니다. 전공 공부에는 실제 흥미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이지리아 현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이러한 제 관심이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하는 데 발판이 되어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과목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다보니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항공우주에 대해 배우게 되니 포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국의 문화나 라이프스타일이 잘 맞는지요? 또 한국음식은 고향의 맛과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잘 적응하고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습





니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start-up)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2018년에는 조선대학교 홍보대사로서 학교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활동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대학생활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들을 통해 더 다채로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치킨을 사랑합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다 잘 먹지만 순대는 뱀처럼 생겨서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또 한국 전통문화를 좋아하는데, 그중 국악을 즐겨요.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송가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송가인 씨가 한국적인(국악의 느낌이 섞인) 노래를 정말 잘 해서 팬이 됐어요.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어린이집과 도서관,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간호 및 말벗 되어주기, 하천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향후 진로는?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해 항공우주에 관해 더 심도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한국의 기업에 취직해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국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참석 및 홍보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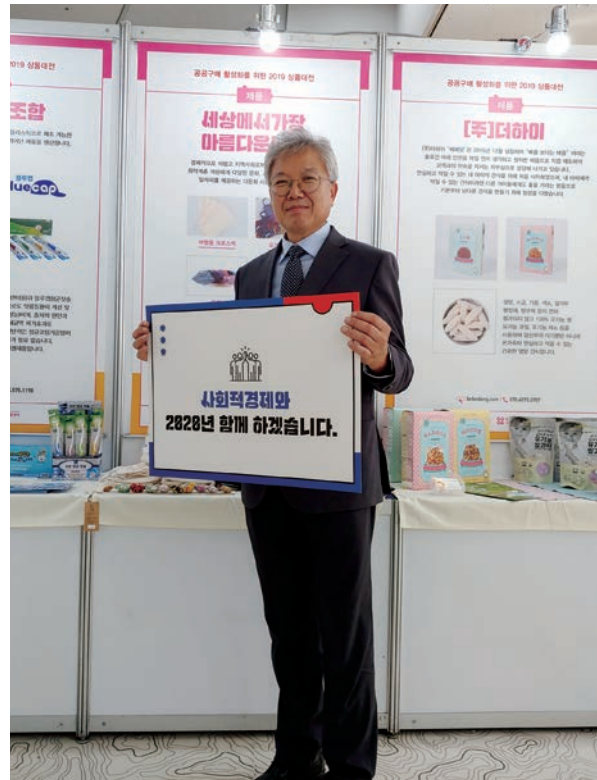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019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일원에서 개최된 ‘2019 광주 사회적경제 협업 박람회’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2019 광주 사회적경제 협업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생산품과 협업 사회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공시장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을 비롯해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 고용노동부, 한국전력공사 외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 중 10월 22일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GNoLL)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열린 ‘리빙랩(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해나가는 기술) 네트워크 포럼’에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 손장완 산업협력 중점교수가 참여, 지역 리빙랩 사례와 한계점 등을 공유하고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 조선대 LINC+사업단은 2019년 10월 23일 김봉석 산학협력 교수를 중심으로 사업단의 성과를 홍보하고,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수요조사 결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대체로 사업화 지원 분야(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킹)로 나타났으며, 기술연구 및 개발업 기업에서는 시험분석과 제작을 위한 장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석 교수는 “이번 박람회에서 개최된 포럼 등 행사가 사회적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향후 관련 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기대된다”고 진행 소감을 말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에서 다문화 푸드+ 부스 운영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019년 10월 20일 열린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에서 ‘지역다문화 연계 Food Business 활성화 RCC’(산학협력 중점교수 김봉석 교수·부기철 교수 운영)를 중심으로 ‘다문화 푸드+’ 부스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조선대학교 소속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협업센터(Regional Collaboration Center-RCC)를 운영하고 있다. RCC는 지역사회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산학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연구·실험실 같은 개념이다.

광주 광산구가 주최해 광주 쌍암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을 비롯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문화콘텐츠시민네트워크, 광주이주여성연합회, 유니버설문화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운영된 ‘다문화 푸드+’ 부스에서는 지역다문화 연계 Food Business 활성화 RCC가 현재 개발 중인 쿠키 시식회 및 설문 조사와 다문화가정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 등이 진행됐다.



LINC+ 아이디어 조선대학교 아이디어 공모전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9 LINC+ 조선대학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된 주제에 맞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1주제는 ‘조선대학교 기념패 디자인 공모’로 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정예은 학생(시각디자인학과)이 대상(조선대학교총장상)을, 윤소연 학생(디자인공학과)이 최우수상(LINC+사업단장상)을 수상했다.

2주제는 ‘조선대학교 교내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로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주영(시각디자인학과)·김재원(영어과) 학생의 ‘단풍이들’ 팀이 대상(총장상)에, 김호성·이관영·김현석 학생으로 이뤄진 ‘기계의 밤’ 팀이 최우수상(LINC+사업단장

상)에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관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이대용 부총장과 김춘성 LINC+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시상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양동시장상인회와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MOU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안전한 양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동시장은 수산물, 건어물, 가구 등 약 340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항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019년 12월 6일

오전 11시 양동시장 복개상가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양동시장상인연합회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전한 양동시장을 만들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춘성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장과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김환호 양동복개연합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이번 협약으로 △양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1월 예정) △위험 상황 선제적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프로그램 지원 △전통시장의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기(투척식) 기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의사당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꿈을 찾아서' 전시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LINC+사업단은 지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꿈을 찾아서’ 전시의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과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인식개선·홍보 및 우리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송갑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선대학교 LINC+, 갤러리 꿈이 주관해 11일까지 진행됐다.

‘꿈을 찾아서’ 전시 오프닝 행사에는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LINC+단장, 송갑석·장병완·박주선·김경진·천정배·주승용·서삼석·윤상현 국회의원, 박철홍 골드클래스 대표, 김선남 전남매일신문

대표, 황인옥 ㈜인스나인 대표, 정경은 광주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미숙 교사, 다문화가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송갑석 국회의원(광주서구 갑)의 개회사와 김춘성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후 장학금 및 격려품 전달, 테이프 커팅식,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 사업단(HK+사업단)

2019년 활동 마무리 겨울방학 및 2020년에도 풍성한 인문학 프로그램 마련

지난 2019년 5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학플러스(HK+) 사업에 선정된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지역인문학센터'를 설치하고, 자연적, 사회적 '재난'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국내외 학술세미나, 포럼, 특강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19학년도 2학기에 지역인문학센터는 <재난인문학 강좌>와 현대소비사회의 감성을 주제로 한 <인문학 켄트 큐업>을 개최하는 한편, 행복학교, 다사랑병원 등의 시설과 연계한 <글쓰기 강좌> 및 <독서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인문학 서비스의 일환으로 조대부고와 조대여고 등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특강'을 펼치기도 했다.

재난인문학센터는 또 2019년 12월 26일부터 이틀간 목포 정명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성악가의 연주와 함께 역사학과 문학 전공 교수의 인문학 특강이 어우러져 미래 세대가 인문학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역인문학센터의 강좌와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12월부터 남도언어문화연구회와 연계해 남도 사투리의 특징과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남도의 언어와 문화> 강좌를 마련했으며, 한국고시가연구회, 은암미술관과 연계해 <그림으로 읽는 한국고전문학> 등의 시민 강좌도 개설한다.

2020년 새해에도 지역인문학센터는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재난과 영화', '재난과 미술' 등을 주제로 한 새로운 '재난인문학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영신원과 연계한 <철학 치유프로그램>, 인문학 카페 '지음'과 연계한 <작가와 대화>, <고전 읽기>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과 업무협력을 통한 <인문학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강희숙 조선대학교 HK+사업단장은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 사업단은 인문학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과 함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작업치료학과생 직무교육 “취업에 실질 도움”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작업치료학과와 연계해 기획한 직무교육을 지난 2019년 12월 20일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직무교육은 작업치료학과 3, 4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펼쳐졌

다. 교육에서는 교통약자 및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을 주제로 작업치료학과와 유망취업 분야에 대한 직무적합 교육이 시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령자안전운전지도사(2급) 자격증을 획득하고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조선대학교에서는 작업치료학과 졸업생 한 명이 이번 직무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전재활전문가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윤오남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앞으로도 유망 취업분야의 전문심화교육을 통해 개인별 직무핵심 역량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며, 다양한 취업경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을 통해 성공취업에 이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로 Plan A’ 지역청년층 진로설계 특강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지역청년층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Plan A 지역청년층 진로설계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진로설계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광고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 취업진로부와 연계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2019년 11월 27일 영광고등학교로 시작해 12월 3일, 11일 서진여자고등학교까지 총 3회에 걸쳐 SWOT분석 및 시간 관리, 채용동향 파악 및 구직스킬 향상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실전 취업 대비에 도움을 주어 진로선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오남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청년층들의 진로계획 수립지원과 취업마인드 향상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4차 산업대비 취업역량 자격취득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자격증 취득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취업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이해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기획, 제작 연출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참여 대상자인 조선대학교 재학생 60명이 디지털미디어와 관련된 'ACA(Adobe-Photoshop)자격증'과 '구글 애널리틱스(이하 GA: Google Analytics:GAIQ)'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

지난 2019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 ACA자격과정은 어도비(Adobe)사의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육으로, 참가 학생 30명 중 25명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86.2%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GAIQ 자격증과정(22일~23일)은 구글 사이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인데, 최근 기업에서도 디지털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자격증과정에서는 실무활용 방법에 대비할 수 있어 참여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현직자 동문 초청 '서류합격자 면접 컨설팅' 통해 최종합격자 배출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면접 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최근 진행 중인 '서류합격자 면접 컨설팅'을 통해 최종 합격자 4명을 배출했다.

'서류합격자 면접 컨설팅'은 2019년 하반기 서류에 합격한 취업준비생에게 면접에 대비해 면접 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 조선대학교 출신인 컨설팅 대상자들은 대학일자리센터의 맞춤형 면접 컨설팅을 통해 광주은행, 한국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전력공사 등 유수의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졸업 동문 현직자들이 모교를 방문해 면접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업에 필요한 직무역량까지 최신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성공 전략을 후배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속적인 면접컨설팅을 통해 추후에도 많은 최종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평택창업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대상 2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9년 10월 29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평택창업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을 수행 중인 조선대학교가 우수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검증을 목적으로 주최했으며, 대학생 분야와 일반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가를 통해 대상 2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각 분야별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분야에서는 △대상(조선대학교총장상)에 조선대학교 생명과학고분자공학과 박수완 학생의 '스마트 멀티 손전등' △최우수상(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에 아쿨라팀 'Pin-Puller를 적용한 큐브위성용 태양전지판 구속분리장치' △우수상(조선대학교창업지원단장상)에 LIMIT팀 '스마트 조미료통'/R.I.M팀 '창문형 에어컨'/FUTURE팀의 FUTURE(Fit+Picture)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예비)창업자 분야에서는 △대상(조선대학교총장상)에 조상은 창업자 지키다 대표 '해외여행 휴대용 재난 음급키트' △최우수상(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에 이츠팀 '세일즈 촉진용 IoT 무드등, 광주무등' △우수상에 한인규 '팀블러 공유 서비스'/로고비팀 '캠핑전용 휴대 거치용 스마트 램프'/김민하 '케이스형 드론 낙하산'이 수상했다.

2019년 지역창업자 역량강화 멘토링 데이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이노비즈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창업자 역량강화 멘토링 데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 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주관하여 지역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 창업지원단은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2회의 매칭 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과의 공동 주관해 규모화한 멘토링 데이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 내 창업기업 대표, 창업지원기관, 예비창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창업지원기관별 2020년 창업지원사업 안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상담회(사업연계를 위한 창업지원기관 실무자와 창업기업 상담회) △분야별 심층멘토링(제품제작, 특허, 마케팅 등)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SW(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

스마트 실버세대 SW연말콘서트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오후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만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2019 스마트 실버세대 SW연말콘서트'를 개최해 '오조봇과 함께하는 로봇산타 마을 만들기'를 진행했다.

진도 의신중학교 SW체험학습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진도 의신중학교(교장 이병현) 교직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9 진도 의신중학교 SW체험학습'을 진행했다.

SW코딩교육 주말교육기부활동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2019년 3월 30일~11월 23일까지 한전KDN과 전남도교육청, 조선대학교 공동주관으로 SW교육 저변확대 프로젝트인 '2019년 SW코딩교육 주말교육기부활동'을 성료했다.

'첨단드론 SW기술 활용' 장애인 맞춤형 창업특화교육 29명 수료



조선대 SW융합교육원은 지난 2019년 8월 1일부터 12월 상반기까지 5개월 간 진행된 '2019년 장애인 맞춤형 창업특화교육' 수료식을 지난 2019년 12월 9일 SW융합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광주상무고에서 '진로탐색 소프트웨어(SW) 체험학습'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해(2019년) 주말을 이용해 과학중점학교인 광주상무고등학교(교장 김선성)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소프트웨어(SW)체험학습'을 진행했다.

미래를 향한 SW 체험학습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은 지난해(2019년) 12월 SW선도학교인 광주월산초등학교 3~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향한 소프트웨어(SW)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제14차 조선대-계명대-제주대 도서관 학술교류 협정 워크숍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도서관,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대학교 간 도서관 학술교류는 도서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을 함

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제14차를 맞은 학술교류 워크숍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조선대학교 학술정보지원팀 박범옥 사서와 정현희 사서, 임정수 사서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조선대학교 정현희 사서가 '2020년 KERIS 대학라이선스 현황 및 협상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주대학교 이정호 사서가 '지역학 연구 지원의 플랫폼, 제주자료실-공간 구성 및 아카이브 구축방안', 계명대학교 김숙찬 사서가 '미술전문 -초آمد서실- 설계와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교원 대상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최근 교원 대상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743명의 조선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12.9%인 96명이 메일 및 SMS 발송으로 조사에 응했다.

▲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평가

	세부질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료가 충분하다	11 명	23 명	40 명	16 명	6 명
		11.46%	23.96%	41.67%	16.67%	6.25%
2)	자료가 다양하다	5 명	26 명	38 명	21 명	6 명
		5.21%	27.08%	39.58%	21.88%	6.25%
3)	자료가 최신이다	5 명	18 명	46 명	22 명	5 명
		5.21%	18.75%	47.92%	22.92%	5.21%
4)	이용이 편리하다	2 명	6 명	30 명	40 명	18 명
		2.08%	6.25%	31.25%	41.67%	18.75%

▲ 도서관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

1)	자료의 대출/반납	63명(65.62 %)
2)	도서관 자료의 브라우징	3명(3.12 %)
3)	학술지 및 논문이용(국회도서관 자료이용 등)	12명(12.50 %)
4)	도서관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3명(3.12 %)
5)	교내외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석	15명(15.62 %)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 유형

- 1위 전자저널
- 2위 인쇄논문
- 3위 단행본

▲ 도서 대출일수/대출권수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부족하다	4명(4.17 %)
2)	부족하다	4명(4.17 %)
3)	보통이다	19명(19.79 %)
4)	충분하다	50명(52.08 %)
5)	매우 충분하다	19명(19.79 %)

▲ 가장 필요한 교원 대상 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1)	전자자료 접근성 강화	63명(54.78 %)
2)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제도	17명(14.78 %)
3)	학술DB 관련 교육	16명(13.91 %)
4)	분야별 연구 관련 최신 정보 제공	17명(14.78 %)
5)	연구 윤리 교육	2명(1.74 %)

중앙도서관 “크리스마스 산타 데이”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난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산타 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에 학습과 취업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함으로써 이용자와의 감성 소통과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선물(간식) 증정 이벤트 ▲테마가 있는 영화 기행 ▲크리스마스 트리 & 포토존 설치로 구성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9년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선물(간식) 증정 이벤트’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복장을 한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해주며 눈길을 끌었다.

‘테마가 있는 영화 기행’은 12월 23~24일에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크리스마스 로맨스 영화인 ‘로맨틱 홀리데이’와 ‘리브액추얼리’를 상영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영화 상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CU문화마일리지(2M) 적립과 무료 음료가 제공됐다.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도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됐다.

"FREE HK" 그리고 "FREE GJ"

국가가 '묻은' 민주주의, 시민들이 다시 '묻다'



송혜림 | 법학과 16학번 |

2019학년도 제31회 조대문화상
논설, 평론부문 최우수상

야경의 낭만, 쇼핑의 천국으로 손꼽히던 홍콩이 공포와 비명으로 점철된 암흑으로 뒤덮인 건 순식간이었다. 2014년 ‘우산 혁명’ 보다는 더 큰 최대 규모로 일어난 이번 홍콩 시위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자 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자, 서로를 부당함에서 지키기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송고한 용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는 무차별적인 곤봉질과 최루탄을 통해 부당한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과거와 ‘닿았다’고 한다. 바로 1980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눈물을 지금의 홍콩시민들이 뜨겁게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우산 혁명을 넘어 2019년 다시금 검정 우산을 펼친 이들도, 역사의 아픔을 겪지 않았던 ‘대학생’들이었다. 다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홍콩인이라는 자긍심과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그들은 중국의 극심한 통제와 압박, 도 넘은 정치개입에 거리 위에 서서 분노를 터트렸다. 그들은 시위 물품을 나누거나 일정을 공유하는 등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고작 40년 전인 1980년, 대한민국 광주에서도 대학생들의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피로 흥건한 머리를 동여매고 화염병을 집어 들었다. 대부분의 시위는 홍콩처럼 청년들이 선두에 섰다. 군부 독재

이번 홍콩 시위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자 했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자,
서로를 부당함에서 지키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숭고한 용기의 산물이다.

에 저항했던 수많은 광주 청년들이 절규했던 가치도 단 하나,
처참히 짓밟혀 버린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한 집단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왜곡하는 것은 쉽다. 바로
'폭동 규정'이다. 독재 권력은 지배체제에 반하는 시위는 국
가 질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력제압을 정당화한다. 국가 정상화 명목하에 죄 없는 시민
들이 총과 칼에 희생되며 자유는 빛을 잃고 민주주의는 정의
를 상실했다. 광주시민을 향한 공수부대의 탄압, 그리고 홍
콩시민을 향한 경찰부대의 폭력은 그 잔인함마저 닮아 있었
다. 시위의 배후를 추정하며 숭고한 시민정신을 폄훼하는 허
언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돌았다.

정부와 강대국에 의해 폭동으로 규정된 두 시위는 과연
'조직화된 폭력'이었을까. 현재의 홍콩시위와 광주민주화운
동은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낸 목숨 건 투쟁의 산물이었다.

대학생연합단체 홍콩 IAD의 조이 수는 2014년의 지도부
가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시위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었기에 이번 시위에서 '지도부'가 없어진 이유를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자발적인 항쟁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문건과 증언록을 통해 밝혀진 바있다. 시민들의 모금으
로 가두방송단을 조직해 정보를 전했고, 리어카를 몰며 주먹
밥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시민공동체를 이뤄내 질서를 바로
세웠다. 자유가 침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발

현한 숭고한 시민정신을 어찌 선동되었다 힐난할 수 있는가.
홍콩시위와 광주항쟁의 자발적인 시민들이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을 새겼다.

일부 언론은 홍콩시위의 이유에 대해 '비싼 집값과 경제
불황' 때문이라 보도했다. 이는 이백만 홍콩 시위들이 고작
개인의 이익을 쫓고자 '민주주의'를 빙자해 난동을 부린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했다. 노골적인 목적 왜곡은 광주민주화
운동 때도 존재했다. 당시 신군부와 관련 언론은 광주시민들
이 지향하는 이념(이데올로기)이 정부와 달라 폭동을 일으켰
다며 무력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대적 보도를 이어갔
다. 홍콩이 힘든 생활문제에 그쳐 소란을 일으켰다면 광주는
이념 자체가 왜곡되어 반동분자로 몰렸다. 이러한 터무니없
는 보도 양상은 중국정부와 신군부라는 거대 입김의 결과였
다. 다행히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올라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
생은 그 명예를 되찾고 있다.

홍콩시민들은 우리의 '촛불시위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
희망을 얻는다고 말했다. 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독재를 몰
아내고 개헌을 이뤄 내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
민국.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역사 속 민주화를 위한 아픔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지금의 홍콩. 같은 아픔의 역사를 지
닌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연대의 손을 잡을 차
레다.(중략)

조선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유병식 교수, 무등의림상 '학술상' 수상

상금 전액 조선대병원 발전기금으로 기탁... 모교 병원 발전에 뜻 모아



조선대병원 유병식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2019년 10월 20일 동강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8회 광주의학의 날' 행사에서 '무등의림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유병식 교수는 50여 편이 넘는 연구 결과를 학술대회에 발표하여 마취통증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상금 전액을 조선대병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수상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유 교수는 '중환자의학'이라는 세부 의학전공 서적의 저자로 참여하여 세부전공 발전에 기여 했으며, 조선대병원의 중환자실장을 역임하며 중환자 진료 수준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조선대병원 의사회원 약 180여 명을 포함하여 1천여 명의 광주시 의사회 소속 회원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족구, 농구,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의사회원 간 단합을 이끌어 내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조선대병원 심혈관센터, 제15회 '2019 에코 조선 워크숍' 성료



조선대병원은 2019년 10월 27일 김동국홀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2019 에코 조선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선대병원 심혈관센터에서 주관한 에코 조선 워크숍은 정중화 센터장의 인사말과 홍순표 전 조선대병원장(제15대)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심초음파술에 관심이 많은 개원의, 전

공의 및 간호사 등 심혈관분야 의료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조선대의대를 포함하여 서울대의대, 성균관대 의대, 경희대 의대, 전남대 의대 등 전국에서 심초음파술을 대표하는 의료진이 한데 모여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조선대 의대 장경식 교수의 Non-invasive intracardiac pressure measurements(비침습적 심장 내 압력 측정)을, 서울의대 조구영 교수가 Hemodynamic assessment using echocardiography(심초음파를 이용한 혈액역학적 평가)를 발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와 정보를 교류했다.

워크숍에서는 심초음파술의 실제 case를 소개하며 유익한 정보와 이론을 공유했고, 심초음파 검사의 경험이 적은 의료진을 위해 기기를 이용하여 표준적인 영상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3분기 '스마일' 및 '손 위생' 우수 교직원 시상식



조선대병원은 2019년 10월 22일 하종현홀에서 '스마일 교직원 및 부서'와 '손 위생 우수 교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병원을 방문하는 외부 고객 및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친절 강화와 함께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선대병원은 매 분기마다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 부서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관련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사회사업실이 선정되었으며, 개인 부분에는 원무팀 고희정, 63병동 김선옥 간호사, 신경과 황병욱 전공의(가나다 순)가 스마일 교직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진 손 위생 우수 교직원 시상식에는 다음과 같이 최우수 부문에 3명, 우수 부문에 5명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에 모든 교직원의 동참을 강조했다.

▲ 최우수상(3명, 가나다 순)

특수부서간호팀 박주애 간호사, 내과 장용진 전공의, 피부과 최훈 교수

▲ 우수상(5명, 가나다 순)

병동간호2팀 박은지 간호사, 병동간호1팀 배슬기 간호사, 교육연구부 원대한 인턴, 영상의학팀 위광용 방사선사, 병동간호1팀 윤희영 간호사

조선대병원,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조선대병원은 2019년 10월 30일 제413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내 지진이 났을 경우 병동 화재 발생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경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 2~3 수준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대병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진 발생 시 화재 사건을 가정하여 화재 진압과 환자 대피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소화기와 소화전 및 환자 중증도에 따라 달리 진행됐으며, 각종 대피 요령에 대해 숙지한 교직원들은 자체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행동요령을 익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31병동 처치실 화재발생을 가정한 훈련에서 화재를 처음 인지한 병동근무자는 주변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출동한 자위소방대원은 맡은 임무에 따라 환자 및 내원객을 계단 및 경사로를 통해 대피시키는 등 화재 대피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주요 약물이상 반응을 주제로 '의약품 안전사용' 세미나 실시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2019년 10월 28일(월) 2층 하중현홀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세미나는 마약성 진통제

와 항암제, 조영제 등 주요 약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주제로 의료진 및 의대, 약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 마취통증의학과 정기태 교수-마약성 진통제 약물 이상반응 ▲ 신장내과 신병철 교수-신기능 저하 환자에게 조영제 투여 후 발생한 약물 이상반응 ▲ 종양혈액내과 이희정 교수-항암제 약물 이상반응 순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칙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역 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을 받은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재선정되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베트남 현지 기업인 대상 선진 의료 시설 및 주요 센터 견학 실시



조선대병원은 2019년 10월 30일 베트남 응에안성 지역 메디컬리조트 건립과 관련한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의료 시설 및 주요 진료 센터 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광주 선한병원 정성현 원장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베트

남 현지 기업인들은 광주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조선대병원과 선한병원의 주요 진료센터를 함께 둘러보며 체계화된 의료시설 전반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배학연 조선대병원장과 면담에서 병원 시스템 현황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받은 방문단 일행은 이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공지능암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 진료협력센터 등을 함께 둘러보며 주요 센터별 시설을 익히는 데 주력했다.

각 진료과 전문의가 한데 모여 왔스 포 온콜로지를 이용한 최적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인공지능암센터와 중증 및 급성 심·뇌혈관 질환과 감염병 질환 등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견학을 마친 방문단은 고도의 전문화된 진료 시설에 만족감을 표하였으며, 이번 견학이 "자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견학 소감을 전했다.

대전 닥터오즈정신건강의학과 오세원 원장, 조선대병원에 꾸준한 발전기금 기탁으로 모교 사랑 실천



오세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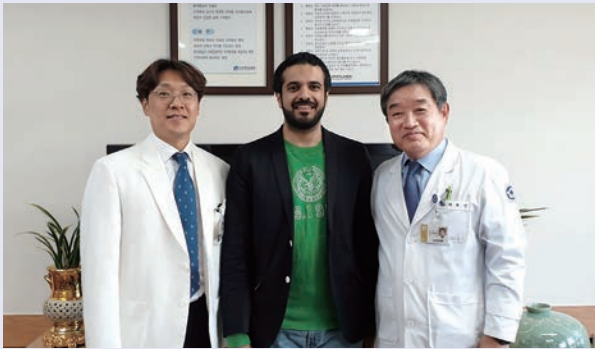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문(4회 졸업)인 닥터오즈 정신건강의학과 오세원 원장(대전 소재)이 최근 조선대병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모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해 온 오세원 원장은 2019년 역시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꾸준한 모교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회 등에서 활발한 의료 활동과 함께 한국문인협회 정회원으로 수필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 온 오세원 원장은 “모교 발전과 함께 후배들에게도 작게나마 보탬을 주고 싶다”면서 “조선대병원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병원, 사우디아라비아 의사 연수 마쳐



조선대병원은 2018년 11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호남지역 유일 ‘중동 의사연수 협력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 3월에는 중동 오만 의학전문위원회(OMSB) 대표단이 조선대병원을 방문하면서 중동 의료진 연수가 추진됐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연수를 희망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Dr.Ibrahim(이브라힘)은 2019년 11월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약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이브라힘은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의 지도하에 약 일주일간 외래 및 입원환자를 위한 진료와 화진 참여, 시술 및 수술 참관 등 집중적인 교육을 소화하며 우수한 한국 의료 수준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찬국 교수, 제39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취임



박찬국 교수

박찬국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지난 2019년 11월 16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 추계학술대회에서 제39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교수의 임기는 내년 2020년 11월까지 1년이다.

1976년 창립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연구,

진료, 교육 분야에 현재 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내시경 분야 각종 지침과 최신 지견을 다루며 국제적인 학회로 성장하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으로 취임한 박찬국 교수는 미국 Mayo Clinic에서 소화기분야 연수를 시작으로 대한소화기학회, 미국소화기학회에서 활발한 학술 활동과 함께 상·하부 소화기질환과 췌·담도 질환을 전문분야로 조선대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및 부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내 소화기질환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및 비만, 음주, 흡연 등으로 소화기 대표 질환인 위암과 대장암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정기검검 및 치료를 강조한 박찬국 교수는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진료, 교육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제7기 성폭력 예방 사업(예.지.모) 해단식 진행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는 2019년 11월 26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 관련 예.지.모(예방과 지켜주기 모임) 자원봉사단 7기 해단식을 열고, 7개월간의 결과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린 결과보고회에는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을 비롯

하여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참석하에 2019년 7기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 21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이 함께 열렸다.

특히, 지난 2018년 6기 예.지.모 사업 당시 42개 초등학교 3,36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의식 확립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올해 7기 사업에서는 총 50개 초등학교 3,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06년 9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지원센터로 개소한 광주해바라기센터는 2013년 성폭력 분야 평가에서 전국 3위에 오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과 함께 2013년부터 예.지.모 사업을 실시하며 아동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절제술 환자의 영양지원' 주제로 영양집중지원팀(NST) 교육 성료



조선대병원은 2019년 12월 4일 오후 4시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절제술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영양지원을 위한 영양집중지원팀(NST) 교육을 실시했다.

원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열린 교육은 각 질환별

환자 상태에 따른 적합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합병증 발생 감소 및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었다.

교육은 ▲ 간, 담, 췌 절제술 환자의 영양지원 - 간담췌외과 신민호 교수 ▲ 대장절제술 환자의 영양지원 - 대장항문외과 김경중 교수 ▲ ESPEN 결과보고(Omega-3 based parenteral nutrition in liver disease) - 소화기내과 조주연 교수의 발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50여 명의 의료진이 각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각 분야의 역할과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조선대병원 영양집중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중 교수(대장항문외과)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영양집중지원팀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최상의 치료를 제 공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어업인 의료복지를 위해 수협재단과 업무협약 맺어



배학연 병원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조선대병원은 2019년 12월 3일 10층 회의실에서 어업인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수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배학연 조선대병원장과 수협재단 이사장 겸 수협중앙회장인 임준택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 어촌 지역 의료봉사활동 지원 ▲ 어업인의 건강상담 및 검진 ▲ 어업인의 의료자원 이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등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 어업인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 기관장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배학연 병원장은 “전남지역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 지원에 조선대병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임준택 이사장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준 조선대병원측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화답했다.

조선대병원, 환자 안전을 위한 'QI 활동 사례 발표회' 개최



조선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 사례 발표회'를 배학연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1월 27일 오후 3시 김동국홀에서 개최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QI(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 만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 시설, 간호, 시스템 등 각 부서의 QI 지표를 개선해 오고 있는 조선대병원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년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 교직원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참석한 20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63병동, 75병동, 제2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소화기내시경센터, 응급의료센터, 영상의학팀, 간호행정팀 등의 QI 활동 소개 이후 심사 결과, '국가 치료병상 관리 Processing 개발을 통한 간호사의 자신감 및 숙련도 향상'을 주제로 QI 활동을 펼친 75병동이 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QR 코드를 이용한 중환자실 상황별 업무 대처 능력 향상'을 발표한 제2중환자실과, '신규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 증진'을 주제로 QI 활동을 펼친 63병동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간호 능력 향상을 통한 환자 안전사고의 제로(Zero)를 함께 추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배학연 병원장은 “모든 부서의 QI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선대병원을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 Process를 발전시키자”고 격려했다.

조선대병원, 일반인 대상 '고혈압 주간 건강강좌' 실시



조선대병원은 2019년 12월 5일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제19회 고혈압 주간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건강강좌는 조선대병원 순환기내과 의료진이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광주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강좌가 이뤄졌다.

이번 강좌는 ▲고혈압이란? - 고영엽 교수 ▲혈압측정법 - 정중화 교수 ▲고혈압의 약물치료 - 기영재 교수 ▲고혈압의 생활요법 - 장경식 교수 순으로 고혈압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혈압은 가을·겨울과 같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계절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조선대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환자 위한 휠체어 기증 받아



조선대병원은 2019년 10월 10일 10층 회의실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0대를 기증받고, 이를 1층 안내데스크에 추가로 비치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대학병원 희망선물 드림' 이벤트에 응모한 조선대병원은 이날 기증받은 10대의 휠체어를 안내데스크에 추가로 편성하여 총 41대의 휠체어를 이동이 불편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

제15대 대한가정의학회 지역 특별위원장에 임명



김삼철 교수

조선대병원 김삼철 가정의학과 교수가 최근 2019년 12월 1일에 출범한 제15대 대한가정의학회 지역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15대 대한가정의학회를 새로 출범했고, 미래기획위원회, 일차의료 수가개발위원회, 지역 특별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일차의료의 조정 역할과, 전 연령에 걸쳐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전국 각 지역별 의료 서비스간의 조정 역할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를 임명했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 위스콘신대 등 해외 연수와 함께 광주광역시 가정의학과 학술이사, Australasian Medical Journal 편집위원 등 학술 및 임상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삼철 교수는 이번 지역 특별위원장 임명으로 전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간호부, 제12회 간호학술대회 개최



조선대병원 간호부는 2019년 12월 11일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08년부터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한 조선대병원 간호부는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임상 간호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며 간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배학연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1부 강의에서는 류마티스 내과 김윤성 교수의 '류마티스 질환 치료약물' 특강에 이어 임상간호 학술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논문 발표에서는 ▲간호사의 좋은 죽음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및 스트레스가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31병동 심지연 간호사) ▲Gap Model 관점에서 광주·전남 의료관광 서비스품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직업환경의학과 김미라 간호사)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열의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외래검사실 김성연 간호사) 순으로 다양한 측면의 간호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배학연 병원장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최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격려했다.

조선대병원 - 효정요양병원 협진 체계 구축 협약



조선대병원은 2019년 12월 5일 10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효정요양병원(광주 광산구 소재)과 협력병원 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의 긴밀한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주요 전남 서부 지역과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효정요양병원은 이번 조선대병원과 협

약식을 통해 중증질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더 체계화된 요양병원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환자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인적 및 기술적 지원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뿐 아니라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의학정보 교환 및 진료 후 회송 등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설경수 효정요양병원장(조선의대 17회 졸업)은 "1971년 개원 이후 꾸준한 발전을 이룬 조선대병원과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고, 이어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조선대병원은 효정요양병원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허리 통증, 디스크 협착증 치료는 척추신경블록 시술이 효과적!

조선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일명,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약물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더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 가벼운 허리통증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3주의 보존적 치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은 정확한 진단 하에 통증 전문의의 신경블록 시술이나 신경성형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증조절에 효과적이다.



임경준 교수

47세 직장인 A씨는 평소에 허리통증이 종종 있었던 환자로 최근 쥐어짜는 듯한 허리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린 느낌으로 오래 걸을 수 없었고 수면 중에는 자세 변경 시 통증으로 인해 잠을 설치기를 반복하여 병원을 방문했다.

A씨가 검사한 MRI상에서 디스크 탈출 소견이 확인되었고, 보존적 치료요법으로 신경블록 치료를 2회 진행했다. 이에 A씨는 통증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허리통증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 힘든 척추협착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는 경구 약물치료와 더불어 신경블록 시술이나 신경성형술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수술적 치료에 앞서 척추신경블록 시술을 먼저 받아 보고 만약 신경블록 시술의 효과에 만족하지 못 한다면 그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 경우나 심각한 운동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할 수도 있다.

신경블록 시술의 효과는 신경주위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눌린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고, 주위 조직의 유착을 제거해 주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신경주위의 나쁜 물질들을 씻어내 주고 주위조직의 부기를 가라앉혀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염증유발 물질을 제거해 준다. 또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 신경주위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신경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준다.

신경블록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당뇨 관리는 신경기능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

또 고혈압약에서 심혈관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아스피린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피린은 신경블록 치료 시술을 받을 시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시술을 받을 때는 아스피린 복용을 최소 5일에서 7일간 복용을 중단하고 시술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밖에 스텐트 삽입 등으로 인해 이러한 약제의 중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한 후 신경블록 치료술을 받기를 바란다.

신경블록 시술은 매우 효과적이며 안전한 치료 방법이지만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숙련된 통증 전문 의사에 의해서 원하는 목표 신경에 정확히 약물이 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x-선 영상 투시 장치 일명 C-arm 영상 투시 장치를 이용한 시술을 권고하며, 모든 시술은 철저한 소독과 무균적 조작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허리통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쭉 편 상태로 앉는다.
- 장시간 앉아 있을 때에는 발 받침대에 발을 얹고 엉덩이보다 무릎을 높게 해서 앉는 것이 좋다.
- 1~2시간마다 허리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보다는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들어 몸에 가까이 붙인다.
- 누울 때는 허리가 바닥에 밀착되도록 한다.
- 과도한 체중과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한다.
- 평지 산책, 걷기 운동을 평상 시 꾸준히 한다.

조선대치과병원 개원 41주년 기념식 성료



조선대치과병원 개원 41주년 기념식이 지난 2019년 10월 25일 조선대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장, 황호길 조선대치과대학장,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박창현 광주치과의사회장, 권훈 조선대치과대학 동창회장, 임현필 전남대치과병원 기획실장, 김혜경 조선대병원 보건노동조합 지부장과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연혁보고, 축하, 기념사,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황호길 치과대학장은 축사에서 “41년 동안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로 오늘날의 치과병원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실력 있고 친절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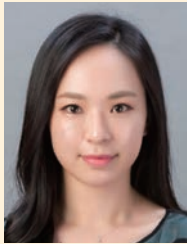
손미경 병원장은 기념사를 대신해서 치과병원 현황과 앞

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손 병원장은 치과병원의 핵심 경영전략과 가치경영의 실행 과정을 설명하며 “새롭게 변화 중인 병원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치과병원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과제로 진행 중인 사업과 교육, 홍보 내용을 설명하며 글로벌한 치과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과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 병원장은 이어 CUDH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알리며 병원 발전기금 참여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 기여에 대해 직원들과 내빈에 다시 한번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조선대치과병원은 1978년 10월 26일 개원한 이래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치과대학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1,2주기 인증을 연속으로 받는 등 지역민의 자부심, 지역 최고의 신뢰받는 치과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선대 치과병원 이하림 전공의,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우수학술상



이하림 전공의

조선대 치과병원 이하림 전공의(치과보철과·지도교수 이경제)가 지난 2019년 10월 19일부터 2일간 개최된 '2019년 대한턱관절교합학회'에서 '교합간섭을 보이는 환자에서의 교합조정 만족도 조사(Research On Satisfaction of Occlusal Adjustment For Patients With Occlusion Interference)'라는 학술발표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는 국내 치과대학은 물론 미국교합학회 등 해외의 우수한 학술단체와도 활발한 학술교류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의 교합학회다.

이하림 전공의의 발표는 치아의 과도한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교합성 외상에 대한 치료법인 교합조정 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에 관한 국내 최초의 조사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교합조정 치료의 프로토콜을 제시해 학회에서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도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임상교수 워크숍 개최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조선대

학교 치과대학 1층 교수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2019년도 임상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임상교수 21명이 참석했으며, 오지수 진료부장이 병원경영 현황을 보고하고 손미경 병원장이 2020년 진료부·교육연구부 주요 추진 업무 계획을 공유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 및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장소를 이동하여 1층 대강당에서 전 교직원 대상으로 치과병원 고객유치를 위한 1등 마케팅 노하우 초청 강연이 펼쳐졌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강관리 습관

김병욱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무병장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암 등에 관한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조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임플란트’라는 치료법이 개발되어 기존의 보철치로나 틀니에 비해 식사하거나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가 흔들리면 빼고 임플란트를 심지”,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진짜 치아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아를 먼저 지키는 것이 치아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치(치주질환)란 무엇인가요?

풍치(치주질환)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치은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치조골)가 녹아버리는(치주염) 병입니다. 치아를 지지해주는 잇몸과 잇몸뼈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흔들리므로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없어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현재 풍치와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풍치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풍치(치주질환)의 징후 및 증상

- ① 잇몸에서 피가 난다.
- ② 잇몸이 간질간질하다.
- ③ 잇몸이 빨갛고 부었다.
- ④ 잇몸이 없어져서 치아가 길어져 보인다.
- ⑤ 치아가 벌어져서 틈이 생긴다.
- ⑥ 치아가 흔들려서 음식물을 깨물 수 없다.
- ⑦ 치아가 아래로 내려온다 (또는 치아가 위로 올라간다)
- ⑧ 치아가 가끔씩 아프다
(치실질을 심하게 한 후에 통증이 사라졌다)
- ⑨ 치아가 시리다. (이런 증상이 1개만 있어도 치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풍치(치주질환)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균이 주성분인 치태(또는 치면세균막, 바이오필름)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며 잇몸뼈를 흡수시킵니다. 편측 저작 습관, 이갈이, 꽉 깨무는 습관 등 과도한 힘도 잇몸뼈를 흡수시킵니다. 기타 마음의 병, 당뇨, 담배, 약물 등도 풍치의 주요 원인입니다.

● 각종 구강용품과 사용방법

기본적으로 치아의 인접면과 잇몸주머니에 살고 있는 세균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균성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칫솔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용품(치실, 치간치솔, 수압기 등)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칫솔

식사한 후에 치아에 부착되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하는데, 칫솔질을 끝마친 후에 치아표면을 굽어 보도록 하십시오. 간단한 기구(예: 이쑤시개, 손톱 등)로 치아표면을 굽어서 무언가 굽어져 나오면 다시 칫솔질을 해서 치아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습관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치솔질 방법은 바이스법을 추천합니다, 바이스법은 치솔모 끝의 일부가 잇몸 주머니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치아면에 45도로 치경부(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치솔질입니다. 모든 치아를 닦기 위해서 일정한 순서(예: 윗니 먼저, 아랫니 나중)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닦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치솔모 또는 중간정도의 치솔모를 선택하고 약 2분 동안 치솔질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치솔에는 세균이 묻어 있으므로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균성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약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치솔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치실

치아의 인접면과 잇몸주머니, 그리고 치간공간(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없거나 아주 좁을 때 사용합니다. 치실을 약 40cm 정도 잘라서 약 10cm 정도만 남기고 양쪽 가운데 손가락에 묶습니다. 이 때 어느 한쪽 가운데 손가락에 더 많이 묶어 주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치실을 팽팽하게 한

다음(약 2cm) 치아의 인접면에서 전후방운동과 함께 위, 아래로 잇몸주머니까지 천천히 치아를 닦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실에 묻은 세균이 옆 치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손가락에 묶여 있어 치실부분을 풀어줘서 항상 새로운 치실부분으로 닦아야 합니다.

3. 치간치솔

치간공간(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사용하는 데, 이 치간 공간보다 작은 치간 치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간 공간보다 더 큰 치간 치솔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4. 수압세정기

강력한 수압을 이용하여 치아의 옆면과 치은열구(잇몸주머니)에 끼어 있는 부착되지 않은 세균과 음식을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한 보조용품입니다.



2019년 11월 1일 ~ 12월 31일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사)KBL		44,000,000	298,327,000
(주)진성에스엠알		148,000,000	274,000,000
(주)큐시스-홍진후	(주)큐시스	15,000,000	125,000,000
김광성	(주)탐외국어사	7,000,000	148,446,900
강기원	법률사무소 기원	3,500,000	3,800,000
강성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강승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강진향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강혁신	법과대학	3,500,000	19,592,800
강희영	의과대학	500,000	8,693,600
공고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장학회	재)조선대학교공과대학 토목공학과장학회	3,000,000	44,000,000
광주은행	광주은행 조대지점	300,000,000	300,000,000
국민은행광주지점	KB광주종합금융센터	10,000,000	407,000,00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국제라이온스협회	100,000	100,000
권민기	공과대학	1,500,000	9,579,600
권혜란		500,000	500,000
기정숙	조선대학교병원	300,000	1,500,000
김가영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경원	공과대학	1,080,000	4,243,600
김고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단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동균		100,000	100,000
김명숙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김미경	조선대학교병원	500,000	740,000
김미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미숙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560,000
김미정	조선대학교병원	400,000	640,000
김미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미희		500,000	500,000
김보미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서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설애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소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슬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시온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 연	의과대학	100,000	1,300,000
김연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영금	씨엔에스	18,500,000	144,500,000
김원탁		100,000	100,000
김유진	광주지방법원	2,300,000	2,300,000
김유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윤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익모	미술대학	400,000	11,491,200
김정현	경상대학	500,000	3,241,600
김지현	사범대학	50,000	6,772,000
김지현	사범대학	450,000	6,772,000
김지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 진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940,000
김진석		100,000	100,000
김진영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진태	공과대학	1,500,000	10,970,000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김채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태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현수	공과대학	1,500,000	10,701,200
김현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현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혜빈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혜연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혜원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김화성		100,000	100,000
김희숙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김희영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나길나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나병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나주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남소연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노순이		100,000	100,000
노애숙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류노엘	법무법인 맥	3,500,000	3,800,000
류은서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류화락		950,000	950,000
명현주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560,000
문다혜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문서영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문영래	문영래정형외과병원	10,000,000	10,000,000
민영돈	제17대 총장	56,020,800	136,935,200
박명숙		100,000	1,120,000
박상옥		100,000	100,000
박상호	미술대학	400,000	11,161,200
박섯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박서진	진월간호학원	100,000	949,000
박신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박유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박종락	공과대학	1,500,000	16,443,600
박준수		100,000	100,000
박지운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박지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박진영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600,000
박철완	NH농협은행	3,500,000	3,500,000
박한빈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박홍엽		100,000	100,000
배진희		100,000	100,000
백해선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15,000,000	16,500,000
서현숙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선률사이언스		100,000,000	100,000,000
선미경		100,000	100,000
세아	세아식품	60,000,000	60,000,000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	3,500,000	3,500,000
송봉애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신설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신유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신인주		100,000	100,000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심성식	거국에터테인먼트	300,000	300,000
심세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안경진	사범대학	1,300,000	4,060,800
안소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안태정	공과대학	1,500,000	9,903,600
양다래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양미경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80,000
양미경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80,000
양혜진	의과대학	100,000	840,000
연규환	한국석유관리원	3,500,000	3,500,000
오동렬	사범대학	1,000,000	5,441,600
오선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유병전	유병전내과의원	12,000,000	44,000,000
유연의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윤영란		100,000	100,000
이나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미란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1,080,000
이민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선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소영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소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 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승환		100,000	100,000
이애경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이연옥	의과대학	200,000	440,000
이연우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우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은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재방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지동		120,000	120,000
이지선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지연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진경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진아	기독교간호대학교	100,000	1,700,000
이행희		100,000	100,000
이현승		100,000	100,000
이혜연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홍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이화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이희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임명자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임미순		1,000,000	1,000,000
임준경		100,000	100,000
임청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장은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장진영		100,000	100,000
장택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5,000,000	5,000,000
장항준	영화감독	10,000,000	10,000,000
장현석		100,000	100,000
장희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40,000
전광록		100,000	100,000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전남지체장애인협회	100,000	100,000
전윤경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정다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정다영	조선대학교병원	150,000	150,000
정소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정수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정수미	빛고을의료재단(기독정신건강병원)	1,000,000	12,440,000
정승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정인덕	(주)성원산업S&D	3,500,000	6,500,000
정현단		500,000	500,000
정현심	송원대학교 겸임교수	100,000	100,000
정현주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서연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선대병원 청라임상회		20,000,000	20,000,000
조선대학교 문무회 (ROTC 출신 교직원 모임)		200,000	1,100,000
조선대학교생활협동조합		20,000,000	5,256,500,000
조선대학군단 27기 동기회		100,000	100,000
조선대학군단 총동문회		100,000	100,000
조선화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성진		100,000	100,000
조아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연우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조연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영경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조용신	미술대학	400,000	4,883,200
조은아		200,000	1,230,000
조의현	미술대학	400,000	10,224,800
조철희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1,000,000	2,000,000
조혜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주기남	공과대학	1,500,000	9,663,600
주명준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주선옥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1,080,000
차정훈		100,000	100,000
채평주		100,000	100,000
천지혜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천지혜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최금봉	조선간호대학교	500,000	1,620,000
최나희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최수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최호필	나노바이드	18,500,000	18,500,000
표향숙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440,000
피앤엘파트너스 주식회사		5,000,000	5,000,000
하충식-사회복지법인 한마음국제복지재단	한마음창원병원	1,000,000,000	1,549,000,000
하충식-사회복지법인 한마음국제복지재단	한마음창원병원	200,000,000	1,549,000,000
한남이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330,000
한민경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한소영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한수진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해오름(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523,000	523,000
홍진아	조선대학교병원	200,000	200,000
황수정	조선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합계		2,143,743,800	



지난해 우리 대학에 보내주신 성원과 보살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 민족 부흥의 열망으로 설립된
한국 최초 민립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건학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배상



조선대학교 홍보대사